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칼로리 표시 의무화, 한식당 유리할지도

FDA, 대형 음식 체인점·자판기 등 칼로리 표시 의무화
한식당 포함한 소규모 업체는 해당사항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미국 식당들의 칼로리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한식당 메뉴에도 칼로리 표시를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비빔밥, 순두부찌개 등 저열량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한식은 실제 칼로리가 표시될 경우 한국 소비자는 물론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훨씬 매력적인 음식이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난 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형 식당 업체의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많은 대형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이 규정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피해 비만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오바마케어 '비만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제정된 새로운 칼로리 표시 규정은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2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대형 음식 체인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식품(샌드위치), 자판기 식품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식당과 소규모 자영 업체들은 칼로리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실상 매사추세츠 주에는 대형

음식점보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식당이 훨씬 많아 새로운 규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식 메뉴는 칼로리 표기 규정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오히려 칼로리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

▶▶2면으로 계속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형 음식 체인점의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국정개입 논란, 정윤희 누구인가

끊임없는 실세 소문 학력, 고향 모두 베일에 싸인 인물

박대통령 정계 입문 때 인연
박지만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는 발언의 주인공
문고리 권력과 각별한 사이



한국 정계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정윤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청와대의 실세로 불리며 '국정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윤희씨는 이전에도 '숨은 실세',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세계 일보의 <국정개입 사실>보도로 시작된 논란은 아직 종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냥개>를 자처한 정씨가 <감시견>을 자처한 조영천 비서관 등의 싸움을 끌고 나간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 언론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씨는 최초 청와대 이제만 안봉근 수석 등과는 통화도 않고 만나지

▶▶2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밭이 적절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허니버터칩, 유학생들에게도 화제

유학생도 먹고 싶은 허니버터칩, 아직은 미지의 과자. SNS로만 접해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에서 허니버터칩의 인기는 과연 대단하다. 편의점에서는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기도 하며 다른 비인기제품과 묶어 파는 이른바 '허니버터칩 인질극' 까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실감하는 허니버터칩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현재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온라인으로 들리는 소식에 입맛을 다실 뿐이다. "꿀과 버터 맛이 난다더라" 라며.

노스이스턴 대학에 재학중인 송현경 학생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SNS를 통해 허니버터칩을 접한다" 며 "주변 친구들도 허니버터칩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뉴스와 SNS를 통해 얘기만 들었다는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생 유나미 씨는 "유학생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지만 주변에 허니버터칩을 먹어본 사람은 없다. H마트에서 팔면 다들 사먹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렇듯 허니버터칩의 인기는 한국에 국

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보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더 궁금해하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일부 유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허니버터칩을 어렵사리 공수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과자 값보다 택배비가 훨씬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지만 허니버터칩을 맛볼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 유학생들의 반응이다.

갓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육예은 씨는 "회사 동료가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회사 사람들끼리 나눠먹었다. 그날 그 친구는 인기만점이었다" 고 전했다. 허니버터칩의 맛에 대해 육 씨는 "왜 그렇게 떠들썩한가 했는데 정말 맛있다. 이름 그대로 버터 맛도 나고 꿀 맛도 강하다. 처음 먹어보는 신선한 맛" 이라고 극찬했다.

뉴욕에서 재학 중인 김준성 학생은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몇 개 숨겨서 보내줬다" 며 어렵게 구한 허니버터칩의 후기를 전했다. "새로운 맛이다.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허니버터칩, 3봉지에 \$56

분명 맛은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다" 며 "아무래도 SNS와 입소문의 힘이 큰 것 같다" 고 지적했다.

한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허니버터칩 세 봉지를 \$56에 판매해 화제다. 한국에서는 1500원인 과자가 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지난 2일 기준 11명이나 주문해 눈길을 끈다.

이어 지난 3일 또 다른 아이디어로 허니버터칩 두 봉지가 경매에 올랐다. 이는 \$19.98로 시작해 반나절 만에 \$46불로 경총 뛰었다. 이베이에 올라온 허니버터칩은 모두 '한국은 배송금지' 로 입소문에 궁금해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식 칼로리 표기 현실적인 어려움 더 커

▶▶1면에 이어서

다. 조리 시 비교적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야채가 들어간 메뉴가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점심 메뉴로 1,000칼로리를 훌쩍 넘는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칼로리 비빔밥의 옵션이 있다. 물론 햄버거가 먹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하고 체중 유지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비빔밥을 선택하게 된다.

보스턴 소재 가수순두부의 미셸 서 사장은 "한식당 입장에서 칼로리 표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찌개나 반찬에 들어간 재료와 효능에 대해 묻는다" 며 "한식이 건강하다는 생각은 많은 외국인들도 갖고 있는 듯하다" 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무엇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서 사장은 "메뉴에 구체적인 칼로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문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종 반찬과 다양한 메뉴에 이를 모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 이라며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전했다.

한식에 평소 관심이 많은 한 한인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주 한국식당협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해서 필요한 절차에 따른 비용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 어떻겠냐" 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 열풍을 강조하는 추세다. 식당을 무조건 많이 차리는 것도 좋지않지만 더 나아가 전문검증기관 등을 통해 칼로리 표시를 한식당들에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한식의 세계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아니겠냐" 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짓 폭탄신고’ 한인 하버드생 반성문에 따뜻한 반응

“진솔한 사과문 고맙다”
“힘내라”
하버드생들 격려 잇따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버드대에서 퇴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엘도 김(김일도)의 진솔한 사과문이 하버드 학생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 훈훈함을 자아냈다.

지난 11월 25일 ‘엘도 김으로부터의 성명(A Statement from Eldo Kim)’이라는 글이 크립슨 지에 게재되었다. 이는 김 군이 직접 쓴 반성문으로 순식간에 ‘가장 많이 본 글’ 순위에 올랐다. 글에는 당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계기와 심경,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군은 “스스로의 어리석고 미성숙한 모습에 부끄럽다.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고 싶지 않으며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본인의 지난 행동에 대해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 논리와 이성을 잃었다. 한심스럽게도 나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 위에 뒀다”고



기소전 전환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엘도 김의 사과문이 지난 11월 25일 크립슨 지에 게재되었다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하버드 학생들은 댓글로 사과를 받아드리며 김 군을 격려한다는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진솔한 사과문을 올려주어 고맙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대가를 치렀으니 사회는 이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익명의 댓글은 10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 외에도 ‘다른 학생들이 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힘내라,’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화가 났지만 사과를 받아드리겠다. 앞날에 행운을 빈다’ 등의 격려의 댓글이 달렸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정한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받아주어야 한

다는 것이 하버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김 군은 기말고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크립슨 지에 이메일을 보내 강의실과 기숙사 등 4개의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캠퍼스 일부가 폐쇄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형사 기소되었던 김 군은 지난 10월 검찰에서 제시한 기소전 전환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봉사 750시간, 당시 출동했던 기관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가택연금 4개월, 공개 사과 이행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면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인간호사협회 투석 관련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간호사협회가 오는 7일 일요일 보스톤 메디컬센터에서 투석(Dialysis)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20년 경력의 전희 간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이날 세미나는 투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환자를 돌볼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 후에는 간호사들간의 네트워킹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무료 간식과 음료가 제공된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투석 전문 간호사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유용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간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nurses.org)를 통해 알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보스톤 메디컬센터 (725 Albany St, Boston, MA 02118)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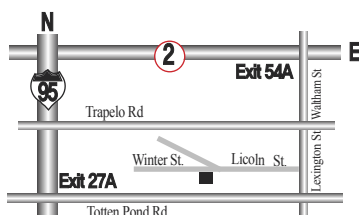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김정은 암살 다룬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

미국 관객 시사회에 뜨거운 반응
제작사 해킹 소란으로
기대감 한층 커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돌고래와 대화하고 대소변도 보지 않는 신비한 지도자라고 믿는다.” 이 얼토당토않은 대사는 ‘더 인터뷰’ 예고편의 일부다.

포스터의 ‘이 무식한 미국 놈들을 믿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부터 심상치 않은 이 영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배우 세스 로건과 에반 골드버그가 공동으로 메가폰을 잡은 ‘김정은 암살 작전’ 코믹 소동극이다.

예고편부터 뜨거운 기대를 받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더 인터뷰’의 시사회가 지난 1일 월요일 보스톤 소재 리비어 호텔 극장에서 열렸다.

제작사 소니 스튜디오(Sony Studios)와 피벗 마케팅 그룹(Pivot Marketing Group)이 주최한 이날 시사회에는 약 250여명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영화 상영 112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상영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유쾌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미교포 인재발굴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콜라보레이션(Kollaboration) 엔터테인먼트사의 보스톤 디렉터 크리스티 램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했다. “처음

부터 끝까지 웃기만 한 것 같다”는 램은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영화였다. 유쾌한 시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연인과 함께 참석한 직장인 패트릭 월시는 “김정은의 캐릭터가 웃겼다.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떠올릴만한 ‘악당’으로 유쾌하고 가볍게 잘 표현한 것 같다”며 웃었다.

이날 시사회에는 ‘더 인터뷰’의 공동 감독을 맡은 세스 로건과 에반 골드버그가 시사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기 정말 영화관 맞나”며 호화로운 시설에 감탄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즐겁고 유쾌하게 감상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감독이자 주연으로도 영화에 출연한 배우 세스 로건은 영화 상영 직전 관객과 함께 셀

카(Selfie)를 찍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25일 미국 극장에 개봉하는 ‘더 인터뷰’는 김정은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인기 토크쇼의 사회자(배우 제임스 프랑코)와 프로듀서(배우 세스 로건)의 좌충우돌 여정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CIA로부터 김정은 암살 미션을 받고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웃음을 자아낸다.

출연진으로는 세스 로건, 제임스 프랑코, 리지 캐플런, 랜들 박(김정은 역) 등이 있다.

한편, 영화 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개봉 예정작과 기밀 정보가 대량 유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란으로 ‘더 인터뷰’ 개봉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더 인터뷰 개봉 앞두고 제작사 해킹 당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김정은 암살 작전을 그린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영상 및 중요 데이터가 유출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더 인터뷰’의 개봉과 연관된 북한의 보복적 소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월요일 소니 픽처스의 시스템이 다운되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획득한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표기되었다. 며칠 후 소니 픽처스의 최근 개봉작과 개봉을 앞둔 영화 5건이 미공개본과 함께 고스란히 토렌트 웹사이트에 유출됐다.

이는 10월에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Fury)와 내년 개봉을 앞둔 카메론 디아즈 출연의 애니(Annie), 스틸 앨리스(Still Alice), 미스터 터너(Mr. Turner), 투 라이트 러브 온 허 암스(To Write Love on Her Arms)를 포함한다.

일주일 만에 ‘퓨리’는 120만회, 애니는 2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되어 제작사 측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해커들의 공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소니 픽처스 고위 대표들의 수백만 달러 연봉이 적힌 리스트와 3,800여명 직원들의 개인 신상 또한 공개 노출된 것이다.

소니 픽처스와 외부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제작사와 FBI 측, 조심스럽게 북한 언급

▶▶4면에 이어서

번 사이버 공격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는 이번 해킹이 '더 인터뷰'의 개봉일이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커들이 유출한 영화에 '더 인터뷰'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한 세스 로건은 지난 6월 본인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이 영화를 좋아했다면 좋겠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영화를 테러 행위로 규정, 영화 상영 시 즉각 무자비한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스 로건은 이에 "영화가 재미없다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보기도 전에 죽이겠다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맞대응했다.

'더 인터뷰'는 오는 25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내년 초까지 총 63국에서 선보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는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대학 음악 동아리 '소리안' 버클리 와 크리스마스 공연

한국가요와 문화 알리는 역할 감당하고 싶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캐롤과 흥겨운 가요(K-pop)로 보스톤의 연말을 매년 장식해왔던 소리안의 축제가 오는 6일 보스톤대학에서 열린다.

보스톤대학 한인 음악 동아리 소리안과 버클리 음대의 한인밴드가 함께 준비한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은 어느덧 5번째 무대로 올해는 '베이비 잇츠 콜드 아웃사이드(Baby

it's cold outside)' 라는 테마로 열린다. "지쳐가는 학기말을 잘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했다"는 소리안의 회장 함동수 씨는 여느 학생과 다를 바 없이 학업으로 바쁘다. 그는 "수많은 미드템과 다가오는 파이널, 페이퍼, 과제 등으로 다들 정신이 없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이번 연말 무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다른 문화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의 무대와는 달리 팝송도 여러 곡 준비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만큼 많은 기대 부탁한다는 것이 함 씨의

말이다. 소리안은 보스톤대학의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가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 "보스톤 전역에 한국가요를 알리며 궁극적으로는 음악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차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리안의 미션"이라고 함 씨는 전했다.

실제로 소리안은 버클리 음대 학생들과 매학기 콘서트를 열며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요와 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행사에 앞서 함 씨는 "소리안 멤버들이 학기 내내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만큼 많이 참석하여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지역 한인들을 크리스마스 음악 축제에 초대했다.

이날 공연에는 소리안 멤버 15명과 버클리 음대의 데이비드 신(David Shin) 프로듀서를 포함한 4명의 밴드 멤버들이 함께한다.

소리안과 버클리 음대의 합동 공연은 오는 7일 토요일 보스톤대학 GSU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티켓은 \$5이며 구매는 링크(sorianconcert.eventbrite.com)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GSU 2층 오디토리움(775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룬 마운틴 스키장 1박2일 여행경비 한눈에 보기



60 Loon Mountain Road, Lincoln, NH 03251
603-745-8111
www.loonmtn.com



▶자동차 렌탈

워터타운(Watertown)과 월렘(Waltham)에 지점을 둔 피터 풀러(Peter Fuller) 자동차 렌탈 업체를 예로 들면 일반 풀사이즈 차량을 빌릴 경우 하루에 \$55이다. 이틀을 빌릴 경우 \$110, 세금(6.25%)을 포함하면 \$116.88이 되겠다. 4명이 한 팀으로 가는 경우 한 사람당 \$30을 채 내지 않는 가격이다.

피터 풀러는 다른 렌탈 업체와 달리 신용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데빗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렌트를 비교적 쉽게 허락하며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렌탈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차를 빌릴 당시 기름의 눈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반납할

때도 눈금이 풀(Full) 약간 이상을 가리키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 까다롭더라도 꼭 준수해야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만일을 대비해 1일 비용(\$17.50)을 내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 기름값이 점차 떨어져 갤런당 평균 \$2.88이다. 일반 풀사이즈 연비를 20(마일/갤런)이라고 하면 왕복 270마일에 필요한 기름은 약 14갤런이다. \$40으로 저렴하게 왕복 기름값 해결 가능하다.

▶1박2일, 첫날은 바비큐 파티

새벽에 출발하지 않는 이상 하루 종일 스키를 즐기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야간 스키를 타기 위해 패스를 끊고 장비를 대여하는 것은 비용 대비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를 연속 스키를 타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른 오후 느긋하게 출발해 첫날 밤은 숙소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푸짐한 저녁으로 다음날을 위한 기력을 보충할 수 있고 1일 패스만 끊어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스키장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캔카마거스 로지(www.kancamaguslodge.com)에는 더블베



드 두 개 딸린 침실이 \$119이다(하룻밤 기준). 이 또한 서너 명이 나누면 약 \$37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

▶1일 패스와 장비 렌탈

룬 마운틴 스키장의 1일 패스는 성인 기준 \$83이지만 정오부터 이용 시 \$73이다. 아침을 먹고 여유롭게 즐기면 좋을 듯하다. 스키 콤보(스키, 부츠, 폴) 대여는 정오부터 렌트할 경우 \$33이다. 개인용 장비가 있다면 챙겨오는 것을 권장한다.

4명이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면 차 렌트, 숙박, 스키장 이용료를 다 합해서 1인당 \$180 정도가 든다. 넉넉히 \$200의 예산을 잡으면 친구들과 즐거운 1박2일 스키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기온이 푹 떨어졌다. 이제 해도 짧아져 도통 집 밖을 나가기 싫어졌을 사람들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겨울의 추위를 싹 가시게 할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필요가 있다.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 국립립 지역에 위치한 룬 마운틴(Loon Mountain) 스키장은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초급 스키어들을 위한 코스부터 아찔한 고급코스까지 총 49개의 코스가 구비돼 있다. 스키 외에도 튜빙, 아이스 스케이팅, 집라인(Zipline) 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스톤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룬 마운틴 스키장, 1박 2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회장후보 없어 한인회 연말파티 내년으로 연기

신년 또는 구정파티로 계획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보스톤한인회(회장 한선우)는 한인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는 14일로 예정되었던 한인회 연말파티를 내년 신년 또는 구정파티로 잠정 연기한다고 한인회보를 통해 지

난 2일 보도했다.

한인회장 후보가 없는 사유로 한인회 연말파티가 연기된 것은 보스톤 한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선우 회장은 바쁜 연말연시에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선을 제공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구회장 이취임식을 겸하게 되어 있는 연말파티가 차

기 한인회장 후보가 없는 관계로 본연의 의미를 상실했기에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시에 차기 한인회장이 나오지 못했지만 한인회 파티가 개최되기 전까지라도 원로들과 고문단, 이사진과 힘을 합해 39대 회장 선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보스톤총영사관 제2회 창조경제 포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창조경제 포럼 행사가 오는 9일 뉴튼 소재 크라운 플라자 (Crowne Plaza) 호텔에서 개최된다.

‘뉴잉글랜드 한인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각종 한인 단체와 과학 기술 단체가 참석한다.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순서의 주제는 ‘제1세션: 뉴잉글랜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제2세션: 벤처투자 및 창업’이다.

세션에 이어 패널 토의와 질의 및 응

답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며 특별히 한인들과 혁신 관계자, 기업가들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코자 리셉션과 만찬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참가 등록은 필수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들과 과학 기술 단체, 벤처 투자자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한인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와 한국간의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 참석에 관심이 있거나 기타 문

의 사항이 있는 경우 총영사관 (hskim14@mofa.go.kr, 617-641-2839 전문직행정원 김효성)으로 연락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9시

장소: 크라운 플라자 호텔 (32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송구영신의 밤 기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가 연말을 맞이하여 오는 12일 금요일 송구영신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의 순서로는 연말 총회가 열리고 푸짐한 만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훌리데이 재즈, 코리안 웨이브(가요) 등의 음악 프로그램과 선물을 증정하는 다양한 기획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동문 회장은 연말 파티에 앞서 “한 해를 되돌아 보며 더욱 발전하는 로

드아일랜드 한인회의 앞날을 기약하는 이날 행사에 로드아일랜드 지역 한인뿐 아니라 뉴잉글랜드의 모든 한인들이 함께 참석해 즐거운 저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장 티켓은 \$35이며 메뉴 선택을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행사 문의는 401-451-8518 혹은 info@rikorean.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나이트 오브 컬럼버스 (Knight of Columbus) 1047 Park Ave #3, Cranston, RI 02910

bostonkorean@hotmail.com



위아보스톤 갈라, 보스톤 소수시민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 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한눈에 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위아보스톤 갈라(We are Boston Gala) 행사가 오는 8일 월요일 보스톤 컨벤션 엑시비션 센터 (Boston Convention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다.

매년 천여명이 모이는 이날 문화 축제는 다양한 문화권의 보스톤의 이민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격려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시작된 위아보스톤 갈라 행사는 올해로 9번째를 축제를 맞이한다.

행사 담당자인 보스톤 시청 인력 자원개발 매니저 아그네스 창 (Agnes Chang)은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보스톤 시의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자 문화권의 다채로운 매력과 끼를 발산하고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민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 아랍,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과 공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리셉션에는 서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과 상품 추첨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민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은 선정해 시상하는 리더십 어워드 (Leadership Award)를 매년 진행한다. 작년 수상자로는 얼마 전 별세한 메니노 시장, 타겟(Target) 보스톤 지점 수석 부사장 짐 호건, 에드윈 소토 학생 등 5명이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8시 30분

장소: 보스톤 컨벤션 엑시비션 센터 (415 Summer Street, Boston, MA 02210)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가 오는 12월 6일 토요일 브룩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장로교회에서 제13회 어린이 동요합창제를 개최한다.

한인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널리 알리고 동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이번 동요합창제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재미한국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교별로 2팀(1팀이 한 곡씩)이 참가할 수 있으며 동요 선곡은 전래 동요, 창작 동요 및 기타 발표곡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회

회장(soonyhan03@gmail.com) 혹은 김현정 총무(anasta24.kim@gmail.com)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6일 오후 2시
장소: 보스톤 한인장로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35
이철영

안절부절하다 (X) -> 안절부절못하다 (O)

'안절부절못하다'가 한 낱말이며 "안절부절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죠?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노래 때문에 많이 잘못 알려졌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14회 동요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오는 20일 토요일 제14회 동요대회를 연다.

참가부문은 독창,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중창, 합창이 있다.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구성되며 지정곡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문별 대상과 1등부터 3등, 특별상이 주어지며 트로피 및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13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는 학교 교무실 혹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대회를 위한 사전 리허설

은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학교 제14회 동요대회가 오는 20일 토요일 열린다

보스톤열린법회, 법륵스님 송년맞이 특별기획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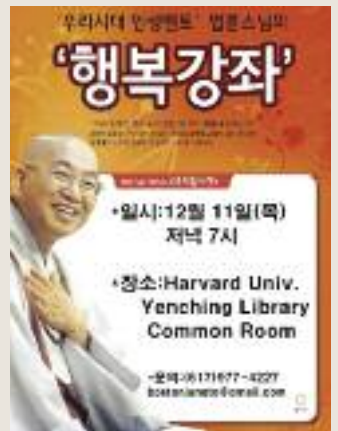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열린법회가 송년을 맞아 오는 11일 목요일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 도서관에서 법륵스님의 영상으로 특별기획강좌를 갖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처받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연말을 보내면서 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법륵스님은 지난해 송년 메시지를 통해 “송년의 가장 큰 의미는 올해 것은 다 털어버리고 내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법륵스님의 특별기획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이메일(bostonjungto@gmail.com)로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하버드대학 엔칭 도서관 커먼룸(Yenching Library Common Room), 2 Divinity Ave, Cambridge, MA 02138
dyoo9146@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이동문 회장)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장학생 모집을 실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역사회

에 봉사하는 학생, 특수 예체능계 학생 모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신청서는 한인회 웹사이트(www.rikorean.org)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

천서를 첨부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선발된 장학생의 시상식은 2015년 삼일절 행사때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몸 부착 카메라, 경찰의 행동도 감시

주 경찰, 몸 부착 카메라 결국은 현실화 될 것, 선제 해결해야 할 것도

경찰, 시민 모두 녹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때 신중해지는 장점

사생활침해 우려, 카메라 구입비용, 기록 보관 및 검토 등에 비용



오바마 대통령의 몸 부착 카메라 제안에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신체 부착 카메라의 착용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많은 경찰관계자들은 물론 매사추세츠 주 경찰도 시범 프로그램 실시를 고려 중이다. 뉴저지 주에서는 이를 의 무화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런 움직임에 각 타운 경찰들은 카메라 구입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서장협회 대표인 웨인 심슨은 “몸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다. 향후 경찰부서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이 몸 부착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고 밝혔다.

비무장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에 대한 총살 사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1일 7천5백만불의 예산을 들여 5만개의 몸 부착 카메라를 미 전국 경찰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심슨을 비롯한 여타 경찰관 들은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경찰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합법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각 시와 타운이 어떻게 카메라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분은 어느 기간만큼 보관되어야 하며 누가 이 촬영 분을 검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감 티모시 알벤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와 동반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알벤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몸 부착 카메라를 6명의 경찰에게 사용케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년 전에도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대시보드 카메라를 시험했지만 당시에 DVD로 기록해 기록물의 용량이 너무 많았고 또한 시민들을 촬영한 것에 대한 법적 우려도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장이 쉬워졌지만 그 용량이 너무 많으며 언론과 다른 기관의 비디오 자료 요청을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알벤은 밝혔다.

알벤 경찰감은 비디오 사용에 대해 경찰 노조와 협상해야 할 것이며 또 카메라 가격도 고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몸 부착 카메라 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의 시민 촬영 기록에는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샘슨은 경찰 서장협회가 내년 1월 경찰의 몸 부착 카메라 사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첼시 경찰 서장 브라이언 카이스는 내년 말까지는 경찰 복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 같은 방법은 수많은 경찰부서들이 카메라 사용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 서장은 “전제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필수적이다. 이 카메라가 이 같은 관념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러나 보스톤 마틴 월시 시장은 아직 몸 부착 카메라 사용할 준비가

MGH 에볼라 의심환자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일 에볼라 의심환자로 MGH에 입원했던 한 남성에 대한 최초 검사 결과 에볼라 검사에는 음성반응을 말라리아 검사에는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의사들은 현재 이 환자가 에볼라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MGH의 데이비드 후퍼 감염통제과 과장은 이 환자가 지난 3주간 에볼라 발병의 진앙지였던 라이베리아에서 3주간 머물렀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라이베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스톤 보건국의 정기 검사를 받는 중 증세가 발전해 12월 2일 MGH에 입원했다.

후퍼 박사는 “환자가 에볼라 감염이 아닌 말라리아 감염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이 있

으며 말라리아로 진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퍼 박사는 병원이 충분한 사전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가 완전히 에볼라 감염이 아닌 것이 밝혀질 때까지 격리 입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퍼 박사는 일단 이 남성에게 말라리아 의약품 처방해 상태가 나아지는지 먼저 관찰하고 만약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후 에볼라 재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에볼라는 최초에 에볼라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왔다.

후퍼 박사는 지금까지 에볼라로 의심됐던 환자들이 결국 말라리아로 밝혀진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안되어 있다면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보스톤 경찰서는 몸 부착 카메라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록 조사 결과 보스톤 경찰이 흑인 주민들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심문, 관찰, 수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몸 부착 카메라의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캐롤 로즈 대표는 “정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데 시민은 정부를 감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뒤엎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캐롤 로즈 대표는 몸 부착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경찰이 카메라를 임의적으로 사용 및 중단토록 허용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즈 대표는 경찰의 카메라 내용이 감금, 체포,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자동적으로 지워지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즈 대표는 “몸 부착 카메라는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 될 것이다. 경찰과 시민 모두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메라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요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카메라보다는 지역 사회와 경찰이 자주 접촉하고 왕래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도 몸 부착 카메라가 대안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BTA 그린라인 확장 공사 연방 자금 10억 달러 지원

서머빌과 메드포드까지
그린라인 확장
연방 자금으로 공사
비용의 43% 조달



서머빌 릴라이어를 앞을 지나 텡스 대학까지 있는 그린라인 확장 공사가 진행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방 정부가 매사추세츠 주의 전철 노선인 그린라인의 연장 공사에 10억 달러 가까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스톤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그린라인은 시 외곽으로 확장을 계획 중이다.

연방 교통부의 테레스 맥밀란 장관 대행이 팀 존슨 연방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MBTA의 그린라인 확장 공사에 9억 9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라인은 서머빌과 메드포드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맥밀란 장관 대행이 지원을 약속한 9억 9천 6백만 달러는 전체 확장 공사 비용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공사 자금은 매사추세츠 주 정

부와 민간 기업의 출자로 조달된다.

비버리 스퀫트 MBTA 사장은 연방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공사는 지방 정부와 주 정부, 연방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 역시 “그린라인을 확장하는 것은 대중교통공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전철 노선의 확장으로 서머빌과 메드포드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 주거의 기회, 여가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린라인 확장 공사는 서머빌과 메드포드 지역에 6개의 역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역 1곳의 위치를 변경한다. 이 공사를 통해 140개의 설계 일자리와 700개의 현장 공사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유지 및 보수를 위해 140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머빌의 역 2곳은 빠르면 2017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나머지 역들은 2020년이나 2021년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jsi@bostonkorea.com

집카 창업자 로빈 체이스 버스 무료 와이파이 개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시작해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집카(ZipCar)의 공동 창업자 로빈 체이스가 새로운 벤처 기업을 시작했다. 체이스가 새로 시작한 기업 이름은 베니암으로, 이 회사에서는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베니암의 와이파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베니암 본사가 위치한 포르투갈의 포르토에서는 약 600여 대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포르토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 중 73%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6만여 명의 사람이 3테라 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체이스는 “600대의 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 많은 숫자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연결된 네트워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말했다.

베니암은 포르투갈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베니암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사무실을 확장하고, 무료 와이파이를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지난 주에 49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베니암의 기술이 성공을 거둔다면 머지 않아 보스톤에서도 버스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베니암은 우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오스틴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781-238-0303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이벤트 1
\$46 상당 선물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FREE
성원에 감사하여
12월 25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벤트 2
홍삼추출액
10%



하버드 학생들이 하버드 스퀘어에서 퍼거슨에서 경찰에 총에 사살된 브라운이 누워 있었던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버드생들도 퍼거슨 평결에 분노했다

하버드 법대생 7명이 조직 케네디 스쿨, 교육대학원 신학 대학원, 케임브리지 린지 앤 라틴 고교생도 참여 거리에 드러누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백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케임브리지 시 주민들이 최근 백인 경찰관을 불기소키로 한 대배심의 평결에 항의해 하버드의 스퀘어와 매스애비뉴를 점거하고 항의했다.

하버드 크림슨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1일 오후 1시 1분, 지난 여름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총을 맞았던 순간 월요일 오후 1시 1분과 같은 시간에 이번 항의는 시작됐으며 하버드 학생들과 케임브리지 린지앤라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웠다.

이번 항의 시위는 법대 학생들이 최근 퍼거슨을 방문하고 돌아온 학생들과 교수들의 체험기를 들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하버드 교육대학원, 케네디 스쿨,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점차 규모가 커졌다.

법대 재학생인 빅토리아 메이슨 씨는 연사로 나서서 13세의 소녀가 최루가스를 맞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을 말했고 다른 연사들도 자신들의 목격담을 전하고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오후 1시 1분이 되자 이번 항의의 시위 조직한 사람중의 한 명인 법대생 레베카 채프맨은 시위대에게 거리에 4분 30초간 드러누는 “다이-인(die-in)” 을 주도했다. 이것은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의 총에 맞아 거리에 누워있었던 4시간 30분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채프맨은 설명했다.

“다이인” 항의 이후 시위대는 법대에서 사이언스센터로 행진했으며

이곳에서 수백명의 학부생들 그리고 케임브리지 린지앤 라틴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이 합류해 매사추세츠 애비뉴로 나섰다. 시위대들은 차량을 막고 하버드 스퀘어 한 가운데에 있는 전철역을 향했다.

케임브리지 경찰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상해자가 전혀 없었고 체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대들에게 시위 허가서를 전달하기 위해 시위 현장을 방문했고 시위대들이 거리로 나서자 교통을 통제해 인근 도로로 우회토록 했다.

이번 시위는 하버드 뿐만 아니라 예일 유엔 등의 대학에서도 동시에 행해졌다.

이번 시위는 약 7명의 법대생들이 지난해 계획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하버드 학생들과 케임브리지 린지앤라틴 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위에 초대했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올림픽 개최 공식 접수

민간 단체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 12월 1일 서류 제출 반대 조직, 1년 넘도록 일반 대중에게 공청회 안했다 미 올림픽 위원회, 오는 17일 개최 후보지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미 올림픽 위원회에 개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민간 단체인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주 의회 및 각종 기업체에 보스톤이 올림픽을 개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과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며 끊임 없는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위원회는 최근 2024 올림픽 총 45억달러 규모의 올림픽 유치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는 대부분 대학경기장 이용,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이용 임시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보스톤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그리고 LA 등과 경합 중이며 미 올림픽위원회는 12월 중순 경 투표로 미국내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다시 국제 올림픽위원회에 보내 오는 2017년 최종 올림픽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스톤 2024 올림픽 개최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던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대변인은 이번 서류 제출이 흑독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의 첫단추를 꿰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틴 월시 시장은 보스톤이 올림픽 개최를 추구하는 것은 보스톤의 미래계획에 대한 기회를 만들 것이며 보스톤의 하부 구조, 교통 시스템, 경제발전 목표 등의 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 밝혔다.

한편, 보스톤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그룹은 여전히 보스톤의 올림픽 개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올림픽 반대 풀뿌리조직(the grassroots organization No Boston Olympics)은 “1년이 넘는 올림픽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보스톤 2024는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으며 일반 대중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매사추세츠 시민들과 납세자들은 완전히 이번 올림픽 추진 과정에서 배제됐다. 더욱더 나쁜 것은 올림픽 위원회에 제출한 입찰 서류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 시민들은 이렇게 취급당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뉴욕 대배심도 백인 경관 불기소

퍼거슨 이어 흑백갈등 악화
우려...긴장 속 유족 "실망"
도시 곳곳에서 시위 벌어져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이어 흑인을 체포하다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항의 시위 모습

(뉴욕·서울=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방현덕 기자 = 뉴욕 거리에서 날개 담배를 팔던 흑인을 체포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미국 뉴욕시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당국자와 변호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비무장 흑인 청년(18)을 사살한 미주리주 퍼거슨 백인 경찰이 불기소되며 미국 전역으로 번진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다시 거세게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벌써 행동에 나섰다.

미국 뉴욕시 스탠포드아일랜드 대배심은 3일(현지시간) 흑인 에릭 가너(43)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하다가 '목조르기(chokehold)'를 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대니얼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배심은 지난 7월 17일 체포 때 동영상 분석과 스탠포드아일랜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증언 청취 등 석달 간의 조사 끝에 표결했으며, 그 결과 이날 판탈레오 경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에 따르면 단속에 걸린 가너의 뒤로 한 경찰관이 다가와 그의 목을 감싸는 형태로 졸랐다. 천식 환자였던 가너가 넘어진 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가너는 길바닥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뉴욕 경찰은 이 같은 목조르기 기법을 금지하고 있어 가너의 죽음은 경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검시관이 "목을 조른 것이 가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견을 냈지만 뉴욕 경찰 노동조합과 판탈레오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논란을 키웠다.

이번 결정은 퍼거슨 소요사태를 부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 내 불붙은 인종 갈등에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사건 현장과 맨해튼 그랜드센트럴역, 타임스퀘어 등에는 이미 어둠이 내린 상황에서도 30~200명씩 모여 퍼거슨 시위구호 "손들었으니 쏘지마"와 가너의 "숨을 쉴 수 없다"란 말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찰과의 충돌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다른 시위대 무리는 맨해튼 6번가를 따라 행진하며 차량 통행을 막고 있

며 일부는 이날 생방송 예정인 맨해튼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CBS는 덧붙였다.

대배심의 결정 몇 시간 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방 차원의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배심의 결정이 법 집행 당국과 지역주민 간 신뢰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가너의 유족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면서도 비폭력 시위를 촉구했다.

가너의 부인인 에스와는 "올해는 누가 우리 애들을 위해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죽지 않아야 했다"고 말했다.

판탈레오 경관은 이날 앞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나와 가족은 가너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의 애도를 받아주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chicagorho@yna.co.kr

미국 17개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 월권> 제소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미국 17개 주(州)는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17개 주를 대표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법무장관 겸 주지사 당선자가 오스틴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는 공화당 성향의 지역과 앨라배마·아이다호·미시시피·유타

주 등이 동참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조만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이민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keykey@yna.co.kr

올해 '미드' 등장인물 아기이름 인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요즘 미국에서 인기 TV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 스포츠 스타 등의 이름을 딴 '아기 이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출산·육아정보사이트인 '베이비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 가운데 인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스포츠 스타 등의 이름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TV 드라마 등장인물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늘었다.

일례로 유명 TV 드라마 제작자인 손다 라임스가 연출한 스릴러 드라마 '스캔들'에 등장하는 '피츠제럴드'(Fitzgerald)와 '헉'(Huck)과 같은 이름은 지난해보다 각각 56%와 44% 증가했고, 메디컬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오는 '에리조

나'(Arizona)와 '캘리'(Callie)를 딴 이름도 35%, 30%씩 늘었다.

10대 인기 남녀 아기 이름은 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름이 차지했으나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는 '조'(Zoe)와 스캔들에 등장하는 '올리비아'(Olivia)는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인기 톱10 남녀 아기 이름은 남자 아기의 경우 잭슨(Jackson), 에이든(Aiden), 리암(Liam), 루카스(Lucas), 노아(Noah), 메이슨(Mason), 이선(Ethan), 케이든(Caden), 제이콥(Jacob), 로건(Logan) 등의 순이었고 여자아기는 소피아(Sophia), 엠마(Emma), 올리비아(Olivia), 아바(Ava), 이사벨라(Isabella), 미아(Mia), 조(Zoe), 릴리(Lily), 에밀리(Emily), 메들린(Madelyn) 등의 순이었다.

quintet@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날개 잃은 유가 추락, '오일전쟁' 중?

WTI 두바이 이어 브렌트도 70 달러 선 붕괴...5년여래 최저
美생산량 증가·중 등 수요감소
·오일 가격용인에 유가하락



한때 미래의 TV로 자본을 끌어모았던 에어리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달 27일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바닥 모를 유가 하락세가 더욱 가파라졌다.

지난 6월 배럴당 106달러까지 치솟았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오일 총회 직후 70달러 선이 붕괴됐고 WTI보다 10달러가량 비쌌던 북해산 브렌트유도 1일 60달러대로 주저앉으며 5년여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WTI, 브렌트, 두바이유 등 이른바 3대 유종의 가격이 모두 60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유가가 향후 얼마나 더 떨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의 유가 급락세는 글로벌 석유 지정학의 대전환에서 기인한다. 중국 등 신흥국 수요가 아니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캐나다에서의 추가 공급과 맞물려 유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일 내에서 산유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다수의 신규 시추 프로젝트가 수익 약화로 중단되길 희망하면서 가격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유가 하락의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고유가·시추 기술 발전에 美 생산량 급증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 당시 유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석유생산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한다는 피크오일(Peak Oil) 우려 때문에 가격이 치솟고 있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유가는 배럴당 약 100달러 안팎에서 하락하지 않았다.

다수의 에너지 기업들은 그동안 시추가 힘들어 채산성이 맞지 않았던 곳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 이제는 수익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에서 여러 업체들은 노스 다코타와 텍사스 등에서 퇴적암의 일종인 셰일에서 수압파쇄(fracking)나 수평(horizontal)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타이트 오일(tight oil)' 붐이 인 것은 이 때문이다. 타이트 오일은 모래와 진흙이 굳어진 지하 퇴적암층에 존재하는 원유다.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유이기 때문에 LTO라고도 불린다. 일부에서는 셰일층이라는 매장위치를 고려해 셰일오일(Shale Oil)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

국 에너지정보국(EIA)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은 동식물의 사체가 원유로 변하기 전 단계인 케로젠이 주성분인 오일셰일(Oil Shale)과 오일셰일에 열을 가해 합성 석유로 만든 셰일오일을 타이트 오일과 구분하고 있다.

타이트 오일 붐으로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급증했다. 2010년 540만배럴에서 올해 8월에는 일일 860만배럴로 증가했다. 글로벌 전체 생산량이 7500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감산 요구에 눈감은 사우디아라비아

최근까지 미국의 오일 붐은, 캐나다와 러시아에서의 증산과 더불어, 국제유가에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일 붐이 한창일 때에 핵심 산유국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맹위를 떨쳤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선 내전이 이어졌고 이라크도 혼란기를 맞았다. 유럽과 미국은 이란 석유에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하루 3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줄었다.

이 상황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바뀌었다. 생산 차질을 빚었던 다

수의 지역에서 생산이 원활해진 것이다.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더욱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원유 수요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7.54달러(10.2%) 하락한 66.15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2009년 9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5.17달러(6.6%) 내린 72.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일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 물값은 67.9달러, WTI 가격은 64.1달러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의 이목이 오일에 쏠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오일은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달 27일 오일의 정례회의에선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몇몇 회원국이 감산을 주장했다. 오일 비회원국인 러시아도 베네수엘라 등을 통해 감산 입장을 불어 넣었다. 이들 국가는 현 수준에서는 정부 예산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감산을 통한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만행적인 사우디는 이 같은 요구를 묵살했다. 사우디는 유가가 100달러 안팎이 돼야 예산을 꾸릴 수 있지만 막대한 현금 보유액으로 단기 하락엔 개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사우디가 미국을 상대로 '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싼 값에 석유를 시장에 풀어서 텍사스와 노스 다코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것이 채산성이 맞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해 미국 업체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유가는 안정화될 것이

라고 사우디 등 오일의 시장 점유율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 예상된다.

◇일부 셰일유전, 42달러까지도 '채산성'

문제는 유가가 어느 선까지 하락해야 미국 셰일 붐이 멈춰설 것인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유가가 85~90달러까지 하락하면 타이트 오일 생산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견해가 지배적이었

다. 하지만 시장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운 유전지대 생산의 80%는 50~69달러에 수익이 남으며, 업체들은 기술 개발로 생산비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다른 분석도 있다. IEA에 따르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이 돼야 채산성이 맞는 곳은 전체 프로젝트의 약 4%에 불과하다. 노스 다코타의 바칸 유전지대에서는 유가가 42달러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캐나다 최대 원유 투자자 중 한 곳인 캐나다 내추럴 리소시스의 회장 마레이 에드워드는 파이낸셜 포스트에 유가가 3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70~75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주간지 포브스의 기고가 제시 콜롬보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40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WTI 선물 가격이 내년 70~75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급락세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봤다. 축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대형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고 주요 산유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choi@news1.kr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November 11th Tuesday
January 19th Monday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April 3rd Friday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12:30pm- 1:00pm Lunch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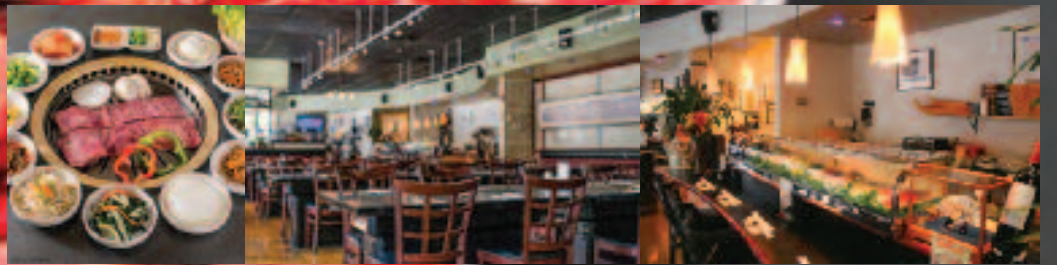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진흙탕 폭로전 '정윤희 문건' 의혹...박 국정동력 '휘청'

'비선실세' 정윤희 당시 청공직기강팀 여론전 새해 국정동력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희씨와 조웅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간 계속되는 폭로 공방 속에 집권 2년 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 씨와 조 전 비서관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폭로전을 진행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본격 실행해야 할 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구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희 보고서' 의혹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임기말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논란의 핵심은 보고서의 신빙성과 청와대 문서유출 경위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건 정씨와 이재만·정호승·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10명이 강남일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하기 위해 논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야권은 이를

'국정 농단사태'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보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짜라시 정보를 수집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정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전 비서관은 "(사실일 확률이) 6할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으로써 정 씨와 문건의 진위여부를 놓고 여론전을 벌이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 씨와 조 전 비서관의 여론전 속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입장은 주목을 끌지 못했다.

또한 정 씨와 조 전 비서관의 충돌은 정 씨의 문고리 3인방과의 접촉여부를 놓고도 이어졌다.

정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이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섭섭하다"고 밝힌 데 대해, 조 전 비서관은 "4월11일 퇴근길에 이 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정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며 "정씨와 절연(絶緣)한 것처럼 얘기해온 이 비서관이 정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



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정 씨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문건) 사건이 터지고 (이 비서관 등과) 통화했다"며 "왜 이렇게 자주 문제가 불거지는지 '이젠 나도 다른 얘기 좀 해야겠다', '내 입장을 얘기해야겠다'고 확실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보고서 작성자로 알려진 박 모 경정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EG회장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여론전이 정 씨와 박 회장 간 권력싸움의 대리전이 아니냐는 얘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박 회장과 조 전 비서관이 1994년 박 회장의 마약 투약사건 수사당시 피의자와 검사로 만나 친분이 있고 또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모두 대구 출신으로 1년 가까이 공직기강실에서 함께 일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로부터 보고서 유출자

로 지목된 박 모 경정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문서를 유출한 적이 없으면서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씨와 조 전 비서관의 여론전과 '비선실세' 정 씨와 박 회장의 권력암투설, 박 경정의 유출에 대한 전면 부인 속에 여론의 이목이 '정윤희 보고서'에 집중되면서,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무원연금개혁, 경제살리기, 창조경제 등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birakoca@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DEC. 5, 2014 - DEC. 11,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농협 NongHyup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DECEMBER 5 - DECEMBER 7, 2014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세요
 Hmart and Nong Hyup brings Korea's finest products to America. Create your own healthy dinner table with products from Nong Hyup.

COUNTDOWN to CHRISTMAS

PEACE & JOY

The best gifts are on sale early.
Plan ahead and get your gifting going!

크리스마스 선물은 H마트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광천 녹차 김
 0.7oz. x 10ea. /box
\$9.99

HAN SIL GA IN PILLOW
 한살가인 낮잠베개
\$16.99
 ea.

TIGER ELEC. WATER HEATER & DISPENSER
 타이거 전기 포트
\$149.99
 PDN-A50U/5L/ea.

SINGO PEAR
 신고배 박스
\$26.99
 box

NEW Haru Haru Rice
RICE RICE BABY!
 하루하루 마이쌀 신제품 출시!
 Try all our new varieties, all with the taste and quality you'll love.
 [현미 / 찰쌀 / 현미찰쌀 / 현미반 현미찰쌀반]
 Also try our new small size HARU HARU Milled Rice (4.4 lbs.)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p>Napa Cabbage 배추 박스 \$13.99 box</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lb.</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p>	<p>Beef Bones 사골 \$1.49 lb.</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차돌박이 \$10.99 lb.</p>	<p>Whole Chicken 통닭 \$1.79 lb.</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스테이크 \$6.99 lb.</p>	<p>Jeju Olive Flounder 제주 활갱어 \$14.99 lb.</p>	<p>TONGTONGBAY Fish Tofu 통통배 두부 어묵 \$3.99 8.46oz./pkg.</p>	<p>TONGTONGBAY Buk Kum Anchovy 통통배 볶음 멸치 \$30.99 2 lbs./pkg.</p>	<p>CHAMPMAR Head-On White Shrimp 머리새우 \$13.99 2 lbs./30-40's/pkg.</p>	<p>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NATURE'S Sweet Rice 자연담은 찰쌀 \$4.99 4 lbs.</p>	<p>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10.99 4.2oz. x 16ea./pkg.</p>	<p>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2.99 Hot/Mild 4.2oz. x 5ea./pkg.</p>	<p>CHUNGJUNGONE Cooking Vinegar 청정원 요리초 \$4.99 31.74fl.oz.</p>	<p>HAIOREUM K Dumplings 해오름 손곱만두 \$4.99 All Varieties/ 1.57 - 1.59 lbs.</p>	<p>Q1 Sesame Bread Mix 큐원 깨쌀빵 믹스 \$3.99 17.6oz.</p>
<p>CROWN Couque D'asse 크라운 쿠키다스 \$2.99 Original/Coffee - 7.6oz.</p>	<p>HAIOREUM Soy milk 해오름 두유 \$9.99 All Flavors/ 6.76fl.oz. x 24ea./pkg.</p>	<p>4 GRAIN Omega 3 Grade A Large Brown Eggs 포그레인 오메가3 라지 달걀 2\$5 doz./for</p>	<p>CIRIO Balsamic Vinegar 시리오 발사믹 식초 \$2.49 16.9fl.oz.</p>	<p>LIVING GLORY Stainless Steel Food Container 리빙 글로리 스텐 밀폐용기 \$2.79 800ml/lea.</p>	<p>Zebra Patterned Slippers 지브라 슬리퍼 \$4.49 Pair</p>

조응천 "문건 신빙성은 6할", 정윤희 · 3인방 정조준

조선일보 인터뷰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청 3인방과 관계 등 밝혀

(서울=뉴스1) 정용석 기자 =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려온 정윤희씨 관련 동향에 대한 청와대 내부 보고서 작성 배경과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정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개입해왔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즉각 해당 보고서 내용이 "사실 아니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황.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에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말로 보도된 보고서 내용이 '사실 무근'이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씨의 국정개입 또는 여론 내 권력암투설(說)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의) '6할 이상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최근까지도 정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그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가 파문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조 전 비서관, 정윤희씨와 '3인방' 비서관 정조준... 이들과의 갈등이 사건 단초?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 중 겪은 '3인방' 비서관과의 갈등관계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여기서 '3인방'은 박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온 청와대의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지칭한다. 이들 '3인방'은 정씨가 처음 발탁해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올 4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온데다, 이번 '정윤희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서는 입이 없다"며 취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신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씨 등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 적극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장과 수석의 지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조사 지시... 문건 신빙성은 6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번 정씨 관련 보고서는 조 전 비서관 본인의 지시에 의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 출신의 박모 경정에 의해 작성됐다.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한지 4개월쯤 됐을 때(작년 12월) 사표를 낸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고 보도도 나왔다. 내가 보기에 전혀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상했다"면서 "내가 우리 방(공직기강비서관실)에 알아보라고 했고, 박 경정이 그중 비교적 명확한 얘기를 보고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관련 지시가 김 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박 경정은 '정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과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동향을 논의해왔고, 특히 김 실장 교체설(說) 유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희)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靑'은 청와대, 'VIP'는 대통령을 지칭)를 작성해 보고했고, 그 내용은 홍경식 당시 수석과 김 실장에게도 보고했다는 게 조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6할 이상이라고 본다"며 "(사실일 가능성이) 6~7할쯤 되면 상부 보고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보고서) 내용이 실제 (정씨와의) 모임에 참석해 듣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했다"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받았다. (박 경정이) 거짓말해서 이득을 볼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상부 보고 이후 해당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추가 조사 지시는 없었고, 박 경정은 2월 인사 발령을 통해 경찰로 원래 복귀 조치됐다. 조 전 비서관 역시 두 달 뒤 사표를 냈다. 아울러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보고서의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지난 5~6월 민정수석실에 올라간 한 문건

에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 나는 당시 사퇴한 뒤였기 때문에 평소 친분이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그 문건을 빨리 조사해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민정수석실은 박 경정이 범인이라고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된 것을 나중에 뒤집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에 이재만이 정윤희 전화 좀 받으라'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정씨가 이 비서관과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4월10~11일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다. 그 직후 '정윤희입니다.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는 문자가 왔다"면서 "이후 11일 퇴근 길에 이재만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정씨와 절연(絶緣)한 것처럼 얘기해온 이 비서관이 정씨의 메시지를 전한 걸 보고 '대체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 비서관은 올 7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선 "정씨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2003~4년경"이라고 답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씨가 걸어들어온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이 있던 뒤인 4월15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그동안 안수고했으니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은 "정씨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속단할 순 없다"면서도 "그때 그냥 전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박지만 도움 없었다... 시사저널 보도는 100% 오보'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는데 따른 정씨 측과의 권력암투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은 "내가 20년 전부터 잘 아는 박 회장의 천거로 청와대에 들어와 그의 오더(지시)로 비선 쪽과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일패도지(一敗塗地)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나를 비서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박 회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특히 "내가 비서관에서 잘릴 때도 '보조 낙하산'(박 회장의 도움)은 퍼지지 않았다"면서 "박 회장은 그럴 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씨가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케 했다'는 올 3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100% 오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박 회장이 정씨 쪽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조심하란 말을 들은 것 같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며 "그래서 박 회장이 김 실장에게 '그게 만약 사실이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한테 알아봐달라고 한 건 없었다"고 했다.

◇'경찰 인사 놓고 2부속실에서 문제 제기하기도... 3인방과의 불편했던 관계'

다만 조 전 비서관은 이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인사 문제 등을 놓고 '3인방'과 불편했던 관계에 있었음은 시인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10월 말~11월 초쯤 청와대에 들어올 예정인 경찰관 1명에 대해 검증하다가 '부담' 판정을 내렸다. 쓰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이라며 "그랬더니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해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때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왜 경찰 인사를 갖고 저러나 이상했는데, 한 달 뒤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란 지시가 떨어졌고, 그 후임들은 다 단수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비서관은 올 7월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원복 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각자 기관으로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며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쪽 기관장이 말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실장이 4~5급 직원을 어떻게 알겠냐. 실장,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옮긴 걸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선 "내가 청와대에서 간간 후 4~30재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자 '그럼 (예상과 달리) 더 잘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둔 본인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ys4174@news1.kr

이상돈 "정윤희 국정개입 파문 특검해야 할 전형적 사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희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해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 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상설특검 1호' 발언에 동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진실성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얻을까"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경한 입장 표명은 당연하지만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상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은 매일 매일 만나야 되는 것"이라면서 "비서관 회의가 뉴스가 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모라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NO'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한 내공과 지식도 없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일종의 집사들"이라고 평가했다.

haru@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검 '정윤희 · 청와대 10인 회동' 강남 중식당 압수수색

매출전표, 신용카드 거래내역, 예약기록 등 자료 확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정윤희 국정개입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와 문건 진위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4일 정씨와 청와대 '실세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포함한 10인 회동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식당에 수사관들을 보내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식당 예약기록 등 관련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청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희) 동향'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1부속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2부속비서관 등 '실세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10명이 해당 중식당에서 매달 2차례 정씨를 만나

국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을 증권기 '짜라시'에 유포하도록 정씨가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당일 '실세 3인방' 등 청와대 측 8명은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박 경정의 문건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박 경정은 이날 형사1부에 소환돼 문건의 진위여부와 작성배경, 정보수집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lennon@news1.kr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희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의 한 중식당

박 대통령 수첩 보면서 "문체부 국·과장 나쁜 사람이라더라"

작년 8월 관계자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인사조치 지시

이틀 뒤 재차 확인 "정윤희 관련 승마협 조사 미움 산 듯"

(서울=한겨레) 석진환, 하어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희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직접 챙겼다는 보도(《한겨레》 12월 3일치 1면)와 관련해,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박 대통령과 정씨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좀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다.

3일 《한겨레》가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단행된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 경질 과정을 취재한 결과, 박 대통령은 그해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아무개 국장과 진아무개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한 두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두 공무원을 지목한 구체적인 이유나,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날 "국·과장의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일개 부처 공무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쁜 사람' 이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인사권을 가진 주무 장관에게 사실상 경질 또는 좌천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언급 직후 문체부는 '돌출 인사' 에 대한 잡음을 우려해 처음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상의하고, 한두 달 뒤 정기인사 때 해당 국장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불과 이틀 뒤 두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이에 따라 문체부는 얼마 뒤 노 국장과 진 과장을 산하기관으로 내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3일 '박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를 직접 챙겼다' 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다.

soulfat@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희씨의 딸 정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마정마술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정보분실 압수수색 때 정보형사 휴대전화 모두 가져갔다

검, 정보분실 직원 17명 휴대전화 압수해 통화내역 등 분석 중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희씨 감찰문건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보형사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실소속 정보형사 17명 휴대전화 모두를 압수해 갔다.

서울청 정보분실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원대복귀하면서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밀봉된 라면박스 크기 정도의 박스 1~2개, 쇼핑백 1~2개, 경찰 정복, 근무복 등 옷가지 등을 옮겨놓은 곳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이들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송수신 문자, SNS 등 내용을 확인 중이다.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짐



검찰수사관들이 3일 오후 서울 남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을 가져다 놓은 지난 2월 전후 통화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형사의 통화내역 상관관계 등을 확인해 분실직원 중 누가 문건 유출에 가담했는지 정황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정보형사 전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순식간에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정보형사의 기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문자송수신 등이 낱알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경우 정치, 정책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취급하는 정보형사의 특성상 돌발사안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정보담당 형사는 "검찰이 이렇게 많은 정보형사들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압수한 건 초유의 일"이라며 "경찰 정보의 심장부가 한마디로 쏙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정보분실에 수사관 다수를 보내 컴퓨터, 각종 서류, 복사관련 업무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박 경정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노트북 2대, USB 1개, 서류뭉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했다.

argus@news1.kr

청와대 "정윤희 국정 개입' 보도, 사실 아니다"

청와대 세계일보 등 상대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감찰 결과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려온 정윤희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과 만나 국정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세계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

다"고 거듭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 나온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짜라시에 불과한 걸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안에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문건 내용을 토대로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퍼뜨렸다'고 보도했다.

ys4174@news1.kr

저희들은 가입에서 건강검진 및 그 기간 중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저희들은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적절한 건강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쉬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GetNetworkHealth.com 에서 확인하세요.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플랜의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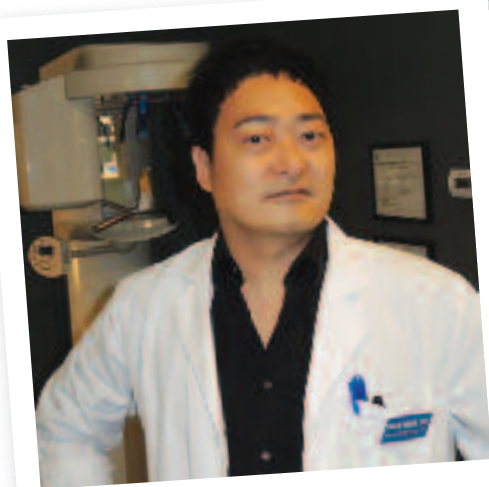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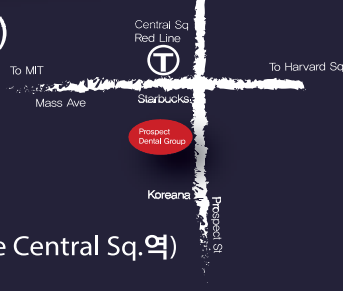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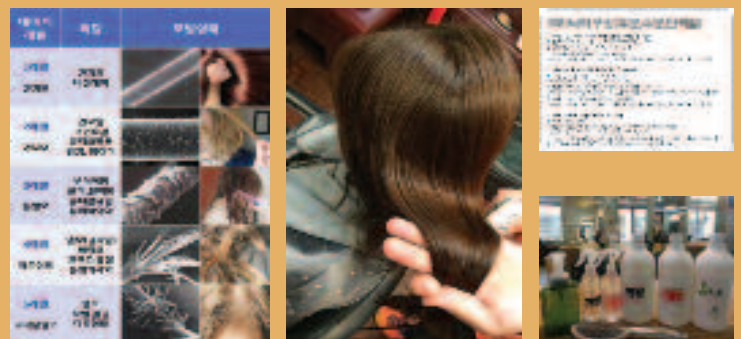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여 "정윤희 파문 검찰수사부터"...야 특검·국조 요구거부

여 공무원연금 개혁 야 '사자방' 국조 '빅딜설'엔 "정치는 딜"

(서울=뉴스1) 유기림, 여태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희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과 관련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건 절차가 있다"며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관례이고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 그 이상으로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파문의 주인공인 정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문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빠른 시간 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을 진행하거나 국정조사를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국정에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겠다"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

했다.

또 "세상은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 미래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되겠다"면서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girin@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실세논란 주인공 정윤희 누구인가

학력, 고향 모두 베일에 싸인 인물 끊임없는 '비선 실세설'



청와대 실세논란의 주인공인 정윤희(왼쪽),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오른쪽)

▶▶1로부터 이어서

일으켰는지 정리했다.

◇정윤희는 누구?

정씨는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인연을 맺고 박근혜 당시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활약했다. 정씨는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이기도 한데, 최태민 목사는 유영수 여사가 사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당시 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의 전 남편으로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이혼 조정안에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55년생으로 59세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정확한 나이와 출생지, 혹은 출신 학교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설이 있을 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늘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만 알려져 있다.

◇2007 대선때 '삼성회'로 박근혜 후보의 외곽 지원설

박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에 복귀해 당 대표가 된 뒤 정씨는 현직에서 물러났고 둘의 공식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삼

성동팀' '강남팀' 이란 외곽 조직을 이끌며 박후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정씨가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정윤희씨가 저를 순수하게 도와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지만 회장 미행설

지난 3월에는 "박지만 회장이 지난해 말 정씨를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다"며 미행을 지시한 이가 정씨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정씨는 지난 7월 말 해당 주간지의 보도탄압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만민회의 멤버?

박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6월 '만민회'의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씨 이름이 또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민회는 이재만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그리고 정씨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온 것으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정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케이신문 '박 대통령 7시간의

문의 행적' 대상으로 의혹제기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씨를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 또는 최 목사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정씨는 산케이신문의 명예훼손 건과 만민회 의혹을 제기한 박지만 의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딸 승마 국가대표 선발 등 기타 관련 의혹들

이 밖에도 정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 의혹이 시달리기도 했으며 현 정권에서 서울고 출신 인사들이 등용된 점을 두고 정씨의 출신 고등학교를 두고도 말이 많았으나 상고 출신에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b@bostonkorea.com

새정치, '정윤희'·'십상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방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정윤희 문건 유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윤희씨와 문건에 거론된 이른바 '십상시'를 공무원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윤희씨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향보고) 문건의 내용이 상당할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윤희씨를 포함해 이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오늘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추가 혐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1~2개 정도의 혐의를 추가시켜 정윤희씨 등에 대해 추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비서관들이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아직 사건이 초기단계이고 현실 가능성을 따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 총무비서관의 위증죄 고발과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니라 고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정윤희씨와 계속 접촉하냐'는 질문에 "최근에 만난 적 없다. 2003년인가 2004년에 만난 적 있다"고 말했으나 정윤희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이 총무비서관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위증이지만 위증죄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 김관영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속도는 빠르지만 내용은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건의 진위 여부에 여전히 느리다"며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 모 경정을 지목, 이 조사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청와대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체적 보고서가 수사의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외부인사인 안상섭 변호사는 "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박모 경정이 정윤희씨와 십상시가 회동한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2시간 이후 이 기사가 사라졌다"며 "사진과 녹취록은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국정개입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hwi@hani.co.kr



설화수, 조화로운 피부 다스림



Time Treasure
설화수 진설 기초 2종 세트 \$220
 SET INCLUDES Time Treasure Perfecting Water 125ml/ Perfecting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Time Treasure Perfecting Water/ Emulsion/ Serum/ Eye Cream/ Cream



Essential Balance
설화수 자음 기초 2종 세트 \$115
 SET INCLUDES Essential Balancing Water 125ml/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Balancing Water/ Emulsion/ First Care Serum/ Rejuvenating Eye Cream/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아이오페, 자연과 인간, 그리고 피부를 위한 생명 과학



Super Vital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스페셜 2종 세트 \$125
 SET INCLUDES Super Vital Essential Softner 150ml/
 Super Vital Essential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Super Vital Essential Serum/ Eye Cream/ Bio Essence
 Intensive Conditioning



Moistgen
아이오페 모이스트젠 에센셜 2종 세트 \$68
 SET INCLUDES Moistgen Essential Softner 200ml/
 Moistgen Essential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Moistgen Essential Softner/ Emulsion/ Moistgen
 Essential Cream



Men Bio
아이오페 남성 스페셜 2종 세트 \$77
 SET INCLUDES Men Bio Essence Intensive
 Conditioning 145ml/ Age Treatment Emulsion
 100ml/ Deluxe Samples: Men Bio Essence/
 Emulsion

라네즈, 마르지 않는 자신감, 수분 전문가



Power Essential
라네즈 뉴 베이직 2종 세트 \$53
 SET INCLUDES Power Essential Skin Refiner Moisture
 200ml/ Balancing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Water Bank Essence/ Moisture Cream/ Water
 Sleeping Pack EX



Perfect Renew
라네즈 퍼펙트 리뉴 스페셜 2종 세트 \$68
 SET INCLUDES Perfect Renew Skin 120ml/ Emulsion
 100ml/ Deluxe Samples: Perfect Renew Essence/
 Firming Eye Cream/ Perfect Renew Cream



Homme Active
라네즈 남성 액티브 워터 2종 세트 \$60
 SET INCLUDES Homme Active Water Skin
 Refiner 150ml/ Active Water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Homme Active Cleanser/ Water
 Skin Refiner/ Active Water Emulsion

GIFT WITH PURCHASE →

\$90 이상 구매 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무료 증정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190 이상 구매 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무료 증정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THE NAZARENE CHURCH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of Greater Boston

<관공성사>
 12/5, (금), 6(토) 대림피정 중
 12/14(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12/21(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12/24일(수) 8pm

<성탄절>
 12/25(목) 4pm
 (성탄절 행사-12:15pm)

<송년미사>
 12/31(수) 9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11:30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kccboston.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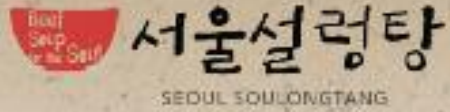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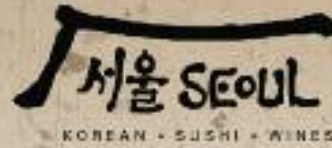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커스전 패배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30일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21 대 26으로 패배했다. 비록 패트리어츠가 경기는 패배했지만, 패커스 홈구장에서 5점 차이로 패배한 건 비교적 선전했다는 것이 풋볼 전문가들의 평가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주 경기를 패배했지만 아직까지 AFC 시드 1위를 지키고 있다. 패커스는 패트리어츠를 꺾고 9승 3패를 기록하며 지구 1위 자리를 지켰다. 현재 NFL에는 상위 5팀이 9승 3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패트리어츠가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경기는 치프스와의 경기다. 14 대 41로 대패한 경기에서 많은 이들이 패트리어츠 왕조의 몰락을 예견했다. 그러나 이후 패트리어츠는 내리 7연승을 달리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패커스전 패배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패트리어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규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슈퍼볼 우승까지 바라보려면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패커스는 패트리어츠가 슈퍼볼에 진출할 경우 상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다.

패트리어츠의 지난 경기에서 얻은 교훈을 살펴보자.

패스 러시의 활용

패커스의 쿼터백 아론 로저스가 당



탐 브래디와 아론 로저스의 첫 맞대결은 로저스의 승리로 끝났다

한 3번의 싹 중 2번이 제이미 폴린스와 단테 하이타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둘은 경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패스 러시가 아닌 일반 수비를 하는데 사용했다. 로저스의 경우 최대 패스를 하기 전에 최대 11초나 포켓에서 머물렀다.

첸들러 존스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하더라도 패트리어츠는 엘리트 쿼터백을 상대할 때 더 많은 패스 러시를 감행해야 한다. 이미 패트리어츠는 패

스 러시를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 쿼터백을 압박해야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코너백의 선수층

패트리어츠의 후방 수비를 담당하는 코너백은 상당히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한다. 그러나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패트리어츠의 코너백이 모든 와이드 리시버를 상대할 수 없다.

코너백 중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대럴 레비스와 브랜든 브라우너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상대편 리시버를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폰조 드나드와 로건 라이언 같은 선수는 특별 지도를 받아서라도 수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러닝 공격의 효과

패트리어츠는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러닝 공격을 17번 시도해 85야드를 전

진했다. 반면에 쿼터백 탐 브래디는 35번 패스를 시도했다. 러닝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러닝 공격과 패스 공격의 균형은 상대팀의 수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패스 공격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러닝 공격을 하는 것처럼 상대 수비를 속이고 패스를 하는 플레이 액션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러닝과 패스 공격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새미치과 특별할인</h3> <p>고급 치과 진료 150만원 → 120만원</p> <p>비치정 치과 진료 80만원 → 60만원</p> <p>소아 치과 진료 20만원 → +1 리세이</p> <p>고국에서 인본적이고 편안한 치과를 받으세요! *필요한 시술만 선택하세요! *세심하게 세척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p> <p>새미치과</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에피크 에스테틱 특별할인</h3> <p>피부관리, 미용, 성형</p> <p>40만원 → 15만원</p> <p>50만원 → 16만원</p> <p>25만원 → 20만원</p> <p>32만원 → 26만원</p> <p>35만원 → 30만원</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h3> <p>비뇨장제 + 발기장애 + 광선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p> <p>-95만은 80만원</p> <p>이운수 & 조성완 비뇨기과</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h3> <p>안전, 만족, 당연, 가성비, 경제, 최정점을 향하는 한의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얻으세요!</p> <p>성형외과 1등 700만원 → 500만원</p> <p>성형외과 2등 800만원 → 600만원</p> <p>특수 성형외과 400만원 → 300만원</p> <p>소근골 200만원 → 150만원</p> <p>흉근골 300만원 → 200만원</p> <p>흉근골 2등 300만원 → 200만원</p>
---	---	---	---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미국문의: 818.331.0401 카카오톡: 010.3469.4040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세월호 참사 7개월 지났는데...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부정청탁 등 개념 모호 '지적', 권익위 대안 마련키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아온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안소위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소집 가능성이 높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법안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진행된 논의를 통해 김영란법 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조항 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문했다. 또한 원안에서 규정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유지하되, 가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권익위가 대안을 마련해오는데로 임시국회에서 집중 심사를 펼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예외조항도 구체적으로 병기하는 법 체계 형식을 주문해 권익위가 준비 중"이라며 "이해충돌 조

항도 개념이 모호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원안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원안은 가족·친지 등의 소속 기관이나 유권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두고 있다. 여야 법안소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 소위 논의대로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유치원 종사자를 포함하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사 기자 등 언론인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안소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하도록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내용도 유지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 중인 3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등) 역시 이번 소위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소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가결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도보팅 제도(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전면 폐지의 적용을 일부 기업에 대해서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새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 제도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해부터는 새도보팅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새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일부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무산 등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새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기업은 일부 안전에 대해 새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도보팅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새도보팅을 허용한 안전은 감사 및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심사 경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 금융위가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법인의 모든 주주총회 목적사항 등이다.

정무위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20% 가량이 새도보팅 폐지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은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간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단체에 더해 총 14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추가로 수익사업이 허용된 9개 단체에 대해서 수익계약은 못하도록 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익계약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신규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9개는 모두 비상이 단체다. ydkim@news1.kr

검·판사로 폄하 등 제한하는 '관피아방지법' 보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유권기관 채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지난 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위법관 검사들의 퇴직후 로펌행을 막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 다수인 법사위가 이 법에 제동을 걸어 상당한 잡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관피아방지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면서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안행위를 통과한 관피아방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로펌 등 취업이 제한된다.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 밖에도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haru@news1.kr

새해 예산 375.4조, 본회의 통과 12년만에 법정시한 준수

누리과정 5064억원 지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예산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73명에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였다.

이날 자정이 임박한 밤 10시 11분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긴 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은 데는 올해 첫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조항인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3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382조7000억원) 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 예산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국방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1000억원 가량이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예산 심사 막판 여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은 전년 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차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반영했다.

국회는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역시 450억원 증액했다.

또한 월 15만원인 영유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17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월 7만5000원 지급 등의 명목으로 1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역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액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역시 국회의 과정에서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 예산 가운데는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비용 7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여야는 공통 관심 사안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역시 298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 역시 117억원 증액했다. ydkim@hani.co.kr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04년 1월 / 1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 200여 개의 도시 / 10여 개의 언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SAT Academy	Business Consulting	Restaurant
------------	-------------	---------------------	------------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Deli
-------------	--------------------	------------	------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Deli	Grocery	Jewelry Business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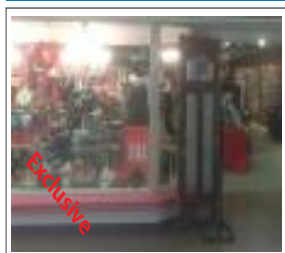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Full Plant Cleaner	Convenience Store	병원 건물 렌트
------------	--------------------	-------------------	----------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7 December 5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손끝부터발끝까지
매니페디(Manipedi)

업소탐방 265

크레이브(Crave)

555 Washington St #1, Wellesley, MA 02482
781-239-9919
http://www.themanipedi.com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연말 연시를 맞아 기분전환을 위한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 혹은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손발이 트기 시작한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매니페디' 를 추천한다.

웰슬리(Wellesley)의 아기자기한 골목에 위치한 매니페디는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네일샵이다. 주주 네일 스파였던 지점이 지난 5월 라이언 김 사장 내외가 가게를 새로 인수 하면서 매니페디로 탈바꿈한 것.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체어가 각각 8개, 약싱 및 페이스 서비스 룸 2개를 갖춘 규모로 주말만 되면 몰려든 손님으로 현관까지 붐빈다고 한다. 주말에는 하루에만 300여명의 손님이 네일이나 페디큐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니 이 동네 인기 만점 업소로 인종된 셈이다.

지역 특성상 한인 고객보다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김 사장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와서는 나란히 네일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연세가 있으신 외국 분들이 주로 찾는다" 고 전했다.

네일샵의 직원은 보통 대부분이 여자다. 그만큼

여직원들이 빨리 배우고 금세 익숙해진다는 것이 김 사장의 말이다. "하지만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손의 힘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고 전했다.

이어 직접 네일 서비스도 하나는 질문에 김 사장은 "배워보려고 했지만 안되겠더라" 며 "바쁠 때 잔업을 도와줄 뿐이다. 혼자 남자여서 늘 왕따" 라며 웃었다.

겨울철에는 스파 페디(Spa Pedis)를 원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약 한 시간 동안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따뜻한 스파와 다리 마사지, 페디큐어를 포함한다. 뭉쳤던 피로가 싹 풀리면서 건조해진 피부에도 촉촉함이 유지되는 것이다.

가격은 \$60의 레몬 스파 페디부터 \$100의 올리브 오일과 울케니 스파 페디까지 다양하다.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는 시아 버터(Shea butter, \$80) 스파 페디로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스파 페디 외에도 속눈썹 연장, 약싱, 마사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영심리학' 을 중요시한다는 김 사장은 "손님을 대할 때는 내가 손님이라면, 직원을 대할 때는 내가 직원이라면" 이라는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한

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들은 항상 맞았던 것 같고 자연히 수입이 따라오더라" 고 전했다.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 앱(App)으로



예약하면 훨씬 편리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니페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매니페디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978-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베링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사우스하버드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32-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맨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617-860-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기와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T. 781-424-2872

웰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86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N [구인]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에서 호스테스 구함
숙식제공,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도 환영, Natick
T. 508-655-500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한국마켓(미시시피)
성업중인 마켓, 사정상 좋은가격에 급매합니다.
사실분 연락 바랍니다.
T. 512-775-6429

N [구인]
마담,웨이터 구함
수준높은 실리콘밸리지역
손님 수준높고,팁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주급+TIP 월 6천 - 1만)
산호세 지역 센스 룸살롱
T. 408-990-5120

워터타운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857-266-4175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벌링턴에 위치한 일식집(산수갑산)에서
주방보조 구함 (풀타임)
T. 718-690-0089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o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영화계 입소문 돈 작품”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4일 만기 제대한 유승호가 차기작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호는 이날 전역 소감을 말하며 “작품을 보고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차기작으로는 ‘조선 마술사’를 골랐다”고 밝혔다. ‘조선 마술사’는 조선시대가 배경인 사극 멜로 영화다. 청나라로 시집을 가게 된 공주가 꼭마단에서 활동하는 소년 마술사와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음모와 운명에 대

한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영화는 ‘번지점프를 하다’ ‘혈의 누’ ‘후궁: 제왕의 첩’ 등 진한 감성 멜로를 그려온 김대승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제작은 영화 ‘변호인’을 성공시킨 위더스필름이며,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다. 이미 영화계에서는 시나리오가 좋다는 소문이 돈 작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기력과 스타성, 군 제대 후 남성적 면모가 더해진 유승호가 어떤 매력의 멜로 영화를 만들지 영화계 관계자들과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유승호는 지난 2013년 3월 5

일 연예인으로는 드물게 만 20살의 나이로 현역 입대를 선택했다. 그동안 이기자부대에서 훈련소 조교로 복무했다. 유승호의 첫 일정은 21일 국내 팬 미팅이며 이후 24일 일본 오사카, 25일 도쿄,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유승호 전역에 네티즌들은 “유승호, 승호야 왜 나보다 어린 거니” “유승호, 전역 축하해요” “유승호, 조선 마술사 재밌겠다!” “유승호, 조선 마술사 꼭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승호의 전역을 축하했다. soho0901@news1.kr

‘한밤의 TV연예’ 에네스 카야 불륜설 조명

피해여성 주장 음성파일 들어보니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불륜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방송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SBS ‘한밤의 TV연예’ 측은 에네스 카야의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여성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여성 A씨는 “방송 보니까 2011년에 결혼했더라. 그런데 2011년에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며 “에네스는 바람도 안 피우고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은 “시기를 계산해보면 그때는 결혼했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때였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또한 A씨는 “내가 ‘총각 행세 하지 말라’고 글을 올린 직후 에네스 카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지만 안 받았다. 가증스럽고 위선자라고 생각하니 전화 받기 싫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B씨 역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보면 알겠지만 연인 관계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계속 만났고 성관계도 있었다. 자기는 바람도 안 피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하며 에네스 카야와 함께 찍은 사진과 나는 메시지를 직접 공개해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B씨는 “(에네스가) 본명을 말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혼혈이라고 했다”며 “자기는 날라리 같은 애들과는 다르다고 얘기해 정말 신뢰했다”고 말했다. 두 여성이 갖고 있는 번호와 제작진이 갖고 있는 에네스 카야의 전화번호를 비교한 결과, 두 번호가 일치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이 공개한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도 규명했다. 송실대 소리공학과 배명진 교수는 “목소리에서 킁소리 같은 끝림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동일한 기율기를 유지하고 있다. 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로서 (에네스 카야와) 동일인물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에네스 카야는 JTBC ‘비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3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권 측을 통해 “앞으로 에네스 카야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그냥 빠른 시일내에 사죄하는게 나을 듯”,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아내는 얼굴까지 공개됐던데”,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엄청 실망했다”,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진실을 알고 싶다”, “에네스 카야 공식입장,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역대급 사건이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ho0901@news1.kr



허경영, 황당한 19대 대선 공약 만주땅 환수에 영토 확장?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허경영의 황당한 19대 대선 공약이 SNS 상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허경영은 전쟁 게임인 UD 온라인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모델 활동을 함에 따라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올렸던 19대 대선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허경영의 19대 대선 공약에는 황당한 13가지 공약이 있다. 내용은 ▲이명박 구속 (사랑의 열매 1조 기부시 면책)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 (결혼 승락시 면책)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 (소속도 봉사 5년시 집행유예) ▲국제연합(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

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 (아버지 연합 제외)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 (재혼시 1/2지급, 삼혼시 1/3) ▲출산수당 출산시마다 3000만원씩 지급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 실시 - 국회의원 1/3로 감원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몽골과 국가 연합 ▲바이칼 호수 서울시 공급 ▲만주땅 국고 환수 ▲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미터 앞까지 영토 확장 등이다. 이와 함께 허경영은 “제가 19대 총선을 대비해 폐복을 하게 돼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친구가 되시는 분들께는 대통령 당선 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star@news1.kr



신해철 수술한 스카이병원 결국

부채 많아 법정관리 신청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다해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스카이병원 강모 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혀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강 원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병원)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며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장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한번의 실수가 운명을 좌우하네”, “의료사고 명백히 판별되길”, “마왕 보고 싶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1월 24일 ~ 11월 30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3.6%



2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23.1%

3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1.9%

- | | | | |
|----|------|---------------|-------|
| 4 | SBS |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 17.6% |
| 5 | MBC |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 17.4% |
| 6 | KBS2 |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 17.2% |
| 7 | KBS1 | KBS9시뉴스 | 16.8% |
| 8 | KBS2 | 해피선데이 | 15.2% |
| 9 | KBS2 | 개그콘서트 | 15.1% |
| 10 | MBC | 무한도전 | 13.8%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 | | |
|----|---------------------|--------------|
| 01 | HAPPY TOGETHER | 박효신 |
| 02 | LUV | Apink |
| 03 | 세 사람 (With 성시경) | 토이 |
| 04 | 광화문에서 | 규현 |
| 05 | 나는 달라 (Feat. BOBBY) | HI SUHYUN |
| 06 | GOOD BOY | GD X TAEYANG |
| 07 | 시간이 천천히 | 이진아 |
| 08 | 내가 그리웠니 | MC 몽 |
| 09 | 위아래 | EXID |
| 10 | 사뿐사뿐 | AOA |

숫자 퍼즐 (Sudoku)

1		6						
7	5			1	4	6		
	4				5			3
5				7				6
8	6			5			1	3
	1			2				5
	8		6					7
		5	1	4				8
							3	9

12월 7일 - 12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p> <p>● 운수: 드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아요 기본 줄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소띠 금상첨화의 운세</p> <p>●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2일 길일, 11, 13일 주의.</p>	<p>범띠 치유되고 아물면서</p> <p>●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까지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3일 길일, 12일 주의.</p>
<p>토끼띠 깊이 생각해보아야</p> <p>●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세일을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기 쉽습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1일 길일, 7, 13일 주의.</p>	<p>용띠 웃으면서 즐겁게</p> <p>●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 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상대의 성의를 생각해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누군가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9일 길일, 8, 13일 주의.</p>	<p>뱀띠 기분전환이 필요한</p> <p>●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금전 출입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하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3일 길일, 7, 10일 주의.</p>
<p>말띠 대책을 세워놓아야</p> <p>●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틀어 생각 시작하면 견줄 수 없이 거리가 멀어 집니다. 더 큰 틀어 생각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양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p> <p>●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해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3일 길일, 7, 8일 주의.</p>	<p>원숭이띠 유리하게 작용할</p> <p>● 운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닭띠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p> <p>●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구입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개띠 신중하게 행동해야</p> <p>● 운수: 자식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돼지띠 한 단계 발전할</p> <p>●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각합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0일 길일, 11, 12일 주의.</p>

강소라, 어깨라인 드러낸 레이스 드레스

드레스 가격이 3만9000원대 '깜짝'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배우 강소라가 완벽한 몸매를 드러낸 의상이 화제다.

강소라는 3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Mnet Asian Music Awards, 2014 MAMA)' 시상식에 여자 가수상 시상자로 참석했다.

이날 강소라는 본 시상식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오프숄더 레이스 디자인의 시스루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 몸매가 드러나는 밀착 의상으로 불륜감 넘치는 몸매를 자랑했다.

특히 강소라가 입은 의상 가격도 화제가 됐다. 한 매체는 "이 의상은 유명 SPA 브랜드(자사 브랜드 기획 상품)로 H사의 제품이며, 3만9000원의 저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여자 가수상 시상 무대에 오른 강소라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을 고려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star@news1.kr



아이유 달력, 블랙 시스루룩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아이유 달력 이미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2일 아이유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15 아이유 캘린더'에 수록 예정인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유는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꽃을 입에 문 채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레드 컬러 스웨터가 아이유의 따스한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아이유는 자신의 팬카페에 달력 판매 소식을 알리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유는 블랙 시스루 의상을 입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유의 몽환적이고 성숙한 매력이 돋보인다.

'아이유 2015 캘린더'는 이날부터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되며 오는 17일부터 온, 오프

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누리꾼들은 "아이유 달력, 빨리 갖고 싶다", "아이유 달력, 다른 이미지 궁금하네", "아이유 달력, 사진 정말 예쁘다", "아이유 달력, 친구에게 선물로 줘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성시경 권진아 '잊지 말기로 해' 인기로 원곡 관심 높아져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성시경의 신곡 '잊지 말기로 해'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원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시경과 신에 권진아가 듀엣으로 하모니를 이룬 '잊지 말기로 해'는 1989년 김현철과 장필순에 의해 빛을 본 곡이다. 이후 1995년 이문세와 이소라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배 뮤지션들에 의해 꾸준히 재해

석되고 있는 '잊지 말기로 해'는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지만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잊지 말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내용의 곡으로, 남녀 싱어의 애절한 감성 하모니가 곡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곡이다.

한편 '잊지 말기로 해'는 3일 자정 공개 직후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star@news1.kr



클라라, 10년 전 사진 공개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배우 클라라가 10년 전 본인의 청순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클라라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클라라" 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10년 전 옛된 모습의 클라라를 담고 있다. 1986년생으로 올해 29살인 클라라의 10대 후반 시절로 보인다.

클라라는 긴 생머리를 한채 소파에 앉아 청순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히 지금과 비교해도 차이 없는 뚜렷한 이목구비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정말 자연 미인이구나", "이렇게 예쁜데 왜 그동안 못 뵈었을까" 등의 반

응을 보였다.

클라라는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 '워킹걸'에서 성인숙 CEO 난희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khe4567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4)>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3)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금령총 발굴 기마 인물상. 안장과 말등자.

서기 375년 이후 100여년간 전유럽 대륙을 석권한 훈족의 원류에 대해서는 동양학자는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원래 흉노라는 이름은 중국 사람들이 훈족을 비하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흉노의 원래 이름은 “훈” 이었던 것이다.

유럽을 침공한 훈족과 흉노의 원래 이름이 “훈” 이라는 것을 내세워 흉노와 훈이 동족이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 동양학자 드 기뉴(De Guignes)였다.

드 기뉴는 1756년에 “훈통사” 를 저술했는데 중국과 서양의 기록을 합쳐서 흉노가 망한 다음에 AD 375년에 훈족이 유럽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수백년 동안의 흉노 역사의 공백을 채워 나갔다. 사실은 드 기뉴가 동양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 흉노는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었다.

BC 127년 한무제 때 광개토태왕, 위청 장군에게 김일제의 부왕 휴저왕이 패전한 뒤로도 흉노는 여전히 존재해서 부침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훈족이 유럽에 나타났던 4세기 말에도 중국 대륙은 5호 16국이(304~439) 난립하고 있었는데 흉노, 선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고 있던 흉노와 훈이 동족이라는 주장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다. 일본 동경 대학의 에가미 나미오 교수는 훈족의 세력권이었던 볼가강 유역에서 판노니아(헝가리) 평원에 걸쳐 출토되는 흉노식 유물을 증거삼아 흉노와 훈족이 동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에가미 교수가 주장하는 훈족 영역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흉노 유물은 흉노식 동북이었다.

동북은 스키타이 식과 흉노(훈) 식 두 종류가 있다. 스키타이 식은 반구형의 몸체와 작은 돌기가 있는 고리 모양의 두 귀를 가지고 있고 굽다리 형식인데, 흉노 식은 사발모양 몸체와 여러 장식 있는 ㄷ 자형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금관가야 왕족들의 무덤인 김해 대성동 29호와 47호에서 출토된 동북과 김해 양동리 235호분에서 나온 동북은 흉노(훈) 식이다.

경주 금령총을 발굴할 때 점토로 만든 기마 인물상(국보 91호)이 출토되었는데, 말 등에 동북이 실려 있었다. 반구형의 몸체와 굽다리 형식으로 미루어 스키타이 식 동북이다.

김해에서 발견된 3개의 동북과 기마 인물상 말 등에 실려 있는 동북으로 인해 훈족의 원류가 한반도 남단의 신라, 가야라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다.

근래에 독일 국영 ZDF TV 방송국이 다큐멘터리 시리즈 <스핑크스, 역사의 비밀>의 “잃어버린 고리 찾기” 프로그램에서 AD 375년 전유럽을 삼시간에 유린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킨 훈족의 원류가 아시아 최동단에 위치한 한반도 한민족일지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편집자 엔스 페터 베렌트와 코넬 대학과 베를린 공과 대학교수였던 아이케 슈미트 박사는 훈족의 원류로 한반도 최남단의 신라와 가야를 지목했다.

ZDF TV다큐 중에 그들이 주장한 바는 “비밀스런 아시아의 초기 역사에서 훈족의 실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세인의 주목을 끈 고고학적 발굴물이 그들의 원래 고향이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 근교의 묘(금령총)에서 부장품으로 점토상이 발굴되었다. 말을 탄 사람 뒤에 흔적 없게 생긴 술이 실려 있는 기마상, 이 술은 똑바로 세워 말탄 사람의 등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그릇(동북)은 지금까지 이곳(신라, 가야 지역)과 훈족의 이동 경로에서만 발견된다” 는 것이다.

베렌트와 슈미트 박사는 기마상 주인공의 복장과 삼각모가 전형적인 유목민 복장이고 안장과 말등자도 훈족이 사용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로마 유리잔들. 유럽과 신라 사이에 인적 왕래가 있었다는 증거.

하던 유물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훈족의 아틸라 왕(AD 434~AD 453)이 기마병을 이끌고 유럽 대륙을 석권할 당시에 로마 기마병들은 훈족이 사용하고 있던 말 안장과 말등자가 없었다. 말 등에 담요 한장을 두르고 그 위에 앉아서 말을 몰고 전투를 하였다. 말등자가 없었던 로마군 기병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손으로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한손으로만 칼, 창을 휘둘러 수 있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이유는 말 안장과 말등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훈족 기병들은 말등자에 두 발을 디딜 수 있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었고, 두 손을 다 사용해 칼, 창, 활을 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뒤로 몸을 돌려 활을 쏠 수 있었다.

로마 기병뿐 아니라 중국도 진나라 때까지 말등자가 없었다고 한다. 중국이 한 무제 이전까지는 한반도 흉노와 싸워 이긴 적이 없는 이유는 말등자 한 가지 만으로도 충분한 이



고구려 무용총의 배사 장면

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베렌트와 슈미트 박사는 신라, 가야가 훈족의 원류가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추가하였다.

첫째는 유럽에 살고 있는 훈족의 후예들이 몽골리안 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라, 가야 사람들처럼 훈족은 편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합궁을 한민족과 훈족이 모두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외의 증거로는 순장(殉葬) 풍습과 장례절차가 양쪽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훈족의 왕 아틸라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치른 그의 장례절차가 한민족의 장례절차와 아주 비슷하다. 그가 사망한 지 3일, 5일, 49일이 되는 날 고인의 말을 도살하여 문상객들이 나눠 먹었는데, 우리 장례는 3일째 매장하고 5일째 삼오제를 치르고 49일째 49제를 치른다.

장례와 묘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법이다. 그리고는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한민족과 훈족의 장례절차가 유사한 것은 두민족 간에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반점은 검은 피부 가진 종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아시아인, 인도인, 아프리카인들에게 나타난다. 백인들 중 10% 정도는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프랑스 살롱 지역과 샤토 지방,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헝가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몽골 반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훈족이 유럽에 진출해서 남긴 징표가 틀림 없다. 물론 게르만 민족들도 몽골반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4세기 말에 게르만은 훈족에게 정복 당하고 겨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훈족의 분명한 실체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민족이며 그들이 남긴 여러 유물과 신라, 가야의 유물을 비교하면 훈족과 한민족 지배 집단 사이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한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역사의 부침을 바라보고만 있을 한민족이 아니었다. 언젠가 세계 역사의 간두에서 한세대를 관장했던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주에는 훈족과 신라, 가야가 공유하고 있는 순장 풍습, 편두 풍습과 복합궁 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된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겨울방학 학업 향상 프로그램

12월 20일부터
1월3일 까지
(12/24,25, 31,1/1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최명희 선생 문학관'에 다녀와서...

여행이란 어떤 목적지를 정해둔 출발보다 목적지 없이 훌쩍 떠나는데 더욱 가슴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흥미롭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은 친정 조카 결혼식이 있어 일정을 정해 떠나는 여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목적이 아닌 훌쩍 홀로 떠나는 여행에 시간을 허례한다. 그렇다, 정해진 목적의 날은 어차피 정해진 날이니 내게 맞는 옷을 차려입고 그 장소에 가서 친지들을 만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정해진 여행의 시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가가 나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일 게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이제부터는 정해진 여행 시간 동안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계신 친지들이나 친구 그리고 지인들을 찾아뵙는 여행이 아닌 오롯이 홀로 돌며 생각하는 그런 여행으로 생각을 굳혔다. 하루 24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내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한국에 산다면 아무 때나 찾으면 될 곳도 정해진 여행 시간이니 아쉬움이 남지 않을만큼 몇 찾을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 놓았다. 그렇게 정해 놓은 곳이 지난번 찾았던

인천의 '소래습지공원'과 '소래포구'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과 '최명희 문학관'이었다. 나는 무작정 전주의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전주 한옥 마을을 들어서며 전통 성당을 둘러본 후 우선 경기전(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을 둘러보았다. 태종은 1410년 전주·경주·평양에 태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모시고 어용전이라 하였다. 그 후 태종 12년(1412)에 태조 진전이라 부르다가 세종 24년(1442)에 와서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 평양은 영흥전으로 달리 이름을 지었다.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6년(1614)에 다시 고쳐 지었다. 이렇게 경기전을 둘러본 후 부채문화관을 둘러 관람하고 전주 고장이 낳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 문학관에 둘러 긴 시간을 둘러 보게 되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혼불』은 책의 제목인 동시에 한 예술가의 목숨의 불, 그렇다! 일제 강점기, 종부(宗婦) 3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랑과 욕망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은 정말 우리가 살았고 살아가는 20세기와 21세기의 불확실한 시대에 불씨로 꺼질 수 없는 혼불로 남은 것이다.

"그름은 지하에 뜬 만월(滿月)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을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 (1997년, 11회 단재상 수상소감 중에서)

"언어는 정신의 지문(指紋) 나의 낮이 짙히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말에는 정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지요. 생각해보면 저는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 그것은 항상 매혹과 고통으로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써오고 있는 소설 『혼불』에다가 시대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쪽 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불빛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의 씨를 삼고 싶었습니다." - (1998년, 8회 호암상 수상소감 중에서)

최명희 선생의 문학관 안에는 선생이 한평생을 혼신을 다해 밤낮으로 흘렸을 피땀 서린 흔적들이 빼곡히 사방 벽면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고향한 전율이 내 깊은 가슴

에 와 닿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선생의 혼불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껌껌이 쌓인 원고지와 깨알처럼 빼곡히 적힌 선생의 글들이 감동보다는 가슴 답답하리만큼 저린 고통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 나 여기 있음이 그렇게 감사한 날인 것을 처음 느껴보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 안에 선생과 한몸이 된 그 느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감동보다 깊은 슬픔과 고통인 것을.

선생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했던 것은 바로 다른 아닌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라는 것이다. 굴곡진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슴에 꿰어 안고 삭이며 홀로 글쓰기에 일평생을 바친 것이다. 그렇게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긴 고행의 시간을 지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혼불』이 태어난 것이다. 그랬으리라, 선생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했던 그 『혼불』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이었다. 그것은 지난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 사이에서 견뎌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묵인 지금이다. 선생이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말처럼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죽도록 일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비와 눈이 섞였다. 비에 젖었으니 눈은 무거웠다. 얇지만 굳은 눈은 치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을게다. 하지만 성급한 마음에 삼을 들었다. 아이가 나왔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갑을 끼고 나왔던 거다. 눈 치우는 일을 거들 눈치였다. 아이가 이젠 머리가 클만큼 컸다.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눈 치우는 일에 프로가 된 내게 든든한 조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물기 먹은 눈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눈 피해는 없으셨는지?

몇일전, 한국일간지에 실린 책품평 기사다. 영국인이 본 한국인의 모습이다. 한국인은 뭐든 '죽도록' 한다. 사랑도 죽도록, 일도 죽도록, 공부도 죽도록, 심지어 술을 마셔도 죽도록 마셔댄다는 게다. 노는 것도 죽도록

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책 저자는 한국인의 모습을 제대로 본 듯 싶다. 꽤 오래전 프로바둑 기사 조지훈이 말했다. '목숨 걸고 둔다.' 치열하게 바둑에 임한다는 말일게다. 포항 제철 박태준 회장은 '제철공장을 만들지 못하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겠다' 고 했던가. 한국인은 뭐든 목숨까지 담보한다. 그저 즐기려고 하는 건 아마추어가 하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한국인은 모두 프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사업 상대들에게서 듣던 말이고 언약이다. 아닌게 아니라 참 열심히들 일한다. 그건 내가 옆에서 봐서 안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일이 주어지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이다. 뭐 나라고 다르게 없었다. 현대, 이 정신도

일제 식민지문화의 잔재 아닌가? 우리에게 죽음을 담보하는 하는 것보다 신바람이 먼저 아니었던가 말이다. 말을 바꾼다. '신나게 일하겠습니다.' 대신 멍석만 깔아 주십시오.'

견위수명見危授命이란 말이 있다. 눈어에 나온다. (조국이) 위협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다. 안중근의사의 말씀이기도 하다. 견불의수명見不義授命이라 말을 바꾼다면,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기개에 합당하지 않다. 불의不義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말이다. 목숨은 오직 대의大義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만 바친다.

인도에 출장중, 심부름을 하던 게스트하우스 집사가 있었다. 이 친구 크리켓 게임을 이

삼일에 걸쳐 열광하면서 본다. 하루 종일토록 보는데, 소리에 탄성을 섞어 삼매경에 빠지는 거다. 그것도 티비 삼삼 재방송을 말이다. 이 사람들 우리네 일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죽도록 일하는 건 아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대신 크리켓 게임은 죽도록 사랑하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런 이 사람들 차차에도 크림을 넣어 마시더라. 영국이 인도에 남긴 식민지 유산이라던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9 망국의 기로에 선 조선의 무예(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무예도보통지에 보면 당시의 무예를 수련했던 방법이 보인다. 일담一膽, 이력二力, 삼정三精, 사쾌四快이다. 먼저 무예를 수련하려면 상기 요소의 잠재 능력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무예의 바른 수련을 통하여 그것들을 얻고 향상시켜서 자아완성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첫째로 담膽은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존감(Self-Esteem)이며 자중자애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용기이다. 둘째로 역력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Power나 Strength)만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힘, 즉 정신적인 쾌활한 원기(Self-Resilience)를 말함이다. 셋째로 정精이란 수련에 임함에 최선을 다함이다(Self-Discipline).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인내로 이겨 나가는 정신 자세이며, 그 무예를 수련함에 있어서 바르게 살고 닦은 정수正修를 살신성인할 수 있는 각오로 정도를 갈 때 진정한 무도의 세계에 입신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쾌는 기의 완급이나 동작의 속도뿐만 아니라 극기를 통하여 맛보는 성취감(Self-Achievement)과 초인적인 무예인만이 달성할 수 있는 그 무아를 말함이다. 후일 황기가 창시한 무덕관의 수

련상 '십개신조' 를 보면 무예도보통지의 그것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다. 좀더 자세히 보면, 먼저 '기합' 이다. 무예의 수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기합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기기를 모아 기지를 발산하려고 지르는 소리만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기합을 내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감을 기르려면 기합을 제대로 질러야 한다. 다음은 '시선' 이다. 무예의 수련과 실전에서 물론 잘 보아야 기술과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상대를 먼저 제압하는데는 자신감에 찬 눈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다음은 '중심과 중심의 이동' 이다. 즉 신체적으로 균형과 힘의 배분을 적절히 하여 최소한의 기기를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중심(Center of Gravity)과 중심의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시각적으로도 균형잡힌 유연성과 민첩한 중심의 이동은 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유연성' 이다. 몸이 유연해야 균형도 잘 잡히고 기의 속도도 빠르며 결과적으로 파괴력이 있는 기력의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좋은 유연성은 부상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신체의 유연성 유지를 위하여 끊임 없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다음은 '체력단련' 이다. 무예수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달리기를 비롯

한 기초체력 강화 훈련은 무예를 잘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무예의 기예수련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체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 다음은 '기지의 완급' 이다. 이것은 상대를 제압함에 있어서 상대보다 더 빠르게 민첩한 동작(Speed, Agility)을 취할 때만 효율적인 공격이나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며, 또한 쌍방이 힘(Power, Strength)으로 겨루어야 할 때는 느리지만 강한 힘의 필요성을 말함이다. 다음은 '기의 정확도' 이다. 아무리 미관적으로 좋은 기예로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그 목표점을 놓친다면 그 기예는 무용지기이다. 그래서 무인의 길은 인내(Perseverance)를 가지고 반복되는 수련을 통하여 완성(Master)을 향하여 끝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다음은 '거리의 조절' 이다. 이 역시 기의 정확도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상대와의 간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써야하며 또는 거리를 맞추어서 특정 기술을 사용해야 됨을 뜻한다. 다음은 '호흡법' 이다. 아무리 좋은 기예로 보유하였을지라도 담膽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호흡이 가파지면서 무예의 동작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 무인은 복식호흡과 단전호흡 등을 수시로 연마하여 지구력을 키우고 동시에 담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족단련법' 이다. 태

권도는 맨손의 무예이다. 태권 역시 맨손무예였으며 조선 시대 후기로 들어오면서 수박은 손기술, 각희는 발기술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맨손 무예에서는 손과 발이 공격과 방어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그 손발이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데 연장이 부실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이 무예도 마찬가지다. 손과 발이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수족의 단련은 매우 중요한 무예 수련의 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조선 말기의 무예의 위상을 따라가 본다. 성리학의 통치이념이 관료들을 더욱 옥죄면서 역사의 전면에 사라진 무예의 효용과 그 기록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그 필요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국방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 더 강했지만 훈련도감에서 적계광의 '기효신서' 를 바탕으로 병사들을 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참고하여 '무예제보' 를 편찬하였고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무예의 수련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효종대를 거치면서 '복벌의 꿈' 으로 인하여 군사력 강화를 위한 무예의 매력은 그 가치를 더해갔다. 그 후 영조대에 '무예신보' 의 간행으로 이어진 무예의 발전은 정조대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룬다. '무예도보통지' 의 간행뿐만 아니라 장용영을 비롯한 무사들이 웅비할 수 있는 기구가 대폭 확대되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게토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기만: 퍼거슨 2014, 디트로이트 1967, 그리고 시카고 1919 (1)

2014년, 불타는 퍼거슨

석달 반 전인 지난 8월, 미조리주 퍼거슨시에 서 편의점에서 나오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한 백인 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했다. <퍼거슨 사태>라고 불리는 대규모 인종 소요의 시작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비무장 상태의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을 겨누는 이유도, 그에게 총을 쏜 경찰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사건 직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의 명령에 따라 두 손을 들었는데, 경찰이 여러 발의 총을 쏘았다" 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흑인 사회의 전체의 분노가 증폭되었다. TV 화면은 추모집회에서 애도하는 흑인들의 모습과, <손들었어 쏘지 마 Hands Up Don't Shoot>이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의 풍경, 약탈의 표적이 된 퍼거슨 시내 곳곳의 상점을 비추고 있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자동 소총을 동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질 무렵, 미주리 주는 야간 통행금지등을 포함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조리 당국이 부검 결과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은 최소 여섯 발 이상의 총알을 맞았다는 사실과 그를 쏜 경찰관은 대런 윌슨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마이클 브라운이 편의점에서 50불 짜리 시거를 훔쳐 가지고 나온 영상을 함께 공

개했다.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퍼거슨의 소요사태는 사건 발생 약 2주 후, 미국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가공정한 재수사를 약속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그 후로 무려 석 달이 흘렀다. 홀더 법무 장관은 사임했다.)

며칠 전 11월 24일,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대배심은 마이클 브라운을 총격한 경찰관인 대런 윌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사과정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실 엇갈렸다. 대배심의 판결은 윌슨 경찰관이 브라운을 체포하면서 브라운이 저항하여 몸싸움이 벌어졌고, 거구인 브라운이 얼굴을 가격하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윌슨의 정당방위였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퍼거슨은 지난 8월의 훨씬 더 과격한 소요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조리주는 주 방위군의 병력을 3배로 증강시켰다고 한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이곳 보스톤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저항의 의미로 팻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즈(Die-Ins) 시위가 잇따랐다.

이상 견병지(履霜 堅冰至: 서리를 밟게 되면 단단한 얼음이 된다)

지금 우리가 현재형으로 목도하고 있는 미조리의 인종소요는 충격적이지만 사실 낯설지 않다. 가령 필자의 세대라면 '과속으로 체포된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 네 명에게 구타당하

는 장면' 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단초를 제공했었던 92년의 LA 사태의 뉴스 영상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퍼거슨 사태나 20여 년 전의 LA 폭동 같은 인종 소요사태는 왜 발생할까? "서리를 밟게 되면 곧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되는 때가 온다(履霜 堅冰至)" 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일이 하루 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속뜻이 있다고 한다. 실상 인종 폭동과 같은 엄청난 일은 사실 그 도화선이 되는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적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크고 작은 분노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폭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인종 폭동도 사건들의 타임라인만으로는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기도 명쾌하게 설명하기도 힘들 것이다. 다만 과거의 인종 소요 사태의 맥락을 돌아보면,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 문제적인 장면들이 포착된다. 주민 중 흑인이 압도적 다수임에도 정치 권력과 부는 소수의 백인들에게 집중되어있던 현실과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사실상 불타는 퍼거슨의 화약고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967, 디트로이트의 통-핫 서머

어린왕자의 여우가 그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여지는 현상은 "불타는 도시" 이고 "인종 폭동" 이지만, 조금만 더 깊숙한 이야기는 인종간의 차별과 장벽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가령 영화 8 Miles에서도 그려진 1967년 미시건 디트로이트 인종 폭동을 예로 들어보자. 그 해 여름 뉴저지 뉴어크에서의 인종폭동에 이어 미시건의 디트로이트에서,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뇌관이 되어 다른 미 전역의 여러 대도시에서 인종 소요가 발생했다(Long Hot Summer). 특히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유혈사태는 3명의 사망, 1189명의 부상이라는 인명 손실과 더불어 총 2000 여채의 건물이 파손되었다.

디트로이트 소요는 백인 경찰이 시내의 무허가 술집을 단속하면서 80명에 달하는 흑인 손님 전체를 연행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당시 디트로이트에는 흑인과 백인 간의 그리고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장벽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다. 흑인들이 디트로이트로 이주해오자 도시의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긴 부유한 백인들이 1950년, 그들의 거주지와 흑인들의 거주지를 구획하는 도로인 12번가 길 위에 (현재의 로자파크스길) 총 8마일에 길이, 2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해버렸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장벽은 실제적이기도 했다. 장벽 남단의 흑인들은 일자리나 복지, 희망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먼 "게토" 의 거주민이었다.

(계속)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싱글맘을 위한 희망나눔

변진섭 콘서트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2015년
1월15일
 목요일 오후8시

티켓

\$30, \$50,
 \$70, \$90,
 VIP\$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단체티켓 문의 환영

한양마트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om

뉴저지 버겐팩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라싱)

선착순 100명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왕복요금 \$20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최: **교차로** 신문사 레이디경향 주관: **교차로** 후원: **동포상회** wellbeing PLUS PRIME SOURCE ASSOCIATE INC. 우리사우나 Woori Sauna & Spa **한양마트** 특별후원: **ASIANA AIRLINES** 7 **ASIANA AIRLINES**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버룩시장 **버겐뉴스** **뉴스** **뉴스** 후원: **다모탈모병원** **핑크네일** **이렉오** 구강악안면외과 **NVP BANK** You belong here.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힌튜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매운탕까지



사시미A18인치 투고박스: \$150

160피스+매운탕+마끼4개
T10,S20,F40,H10,W20,R40,i20



사시미B16인치 투고박스: \$100

110피스+매운탕+마끼3개
T10,S10,F20,H20,W10,R20,i20



사시미C14인치 투고박스: \$80

70피스+매운탕+마끼2개
T10,S10,F10,H10,W10,R20



사시미D12인치 투고박스: \$50

50피스+매운탕+ 마끼1개
T6,S6,F10,H6,W10,R12

T: TUNA, S: SALMON, F: FLUKE, W: WHITE TUNA, R: RED SNAPER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스코티시 셀몬, 하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A: 72피스, 초밥 \$98.95

B: 64피스, 스페살롤 \$74.95

C: 64피스, 캘리포니아롤 \$34.95

D: 48피스, 캘리롤24피스, 초밥24피스 \$48.95



김밥:

A: 김밥 200피스, 유부초밥20개 \$130 B: 김밥 100피스, 유부초밥10개 \$70



사시미 폭코스

횃집스타일 코스요리를 제공하오니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많은 애용바랍니다.
싱싱광어한사라, 아구간, 열빙어튀김, 나또무침, 한치물회, 힌튜나, 생굴, 우니, 초밥,
스켈럽버터구이, 생선찜, 스페셜마끼, 얼큰매운탕, 모찌아이스크림
일인당40불이며, 단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9) 감사한 마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라크, 등 전쟁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소식을 시작으로 여러 방송 매체는 미움, 절망, 빛, 성폭행, 살인, 사기, 자살 등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며 희망을 잃게 합니다.

메트 리드리(Matt Ridley)라는 기자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막연한 희망만은 아닙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일반 성인은 50년 전과 비교해서 수입이 세(3)배 더 많다. 물론 물가 상승도 고려한 수치이다. 1960년대는 돈이 많은 부자도 컴퓨터, 휴대전화, 검색 엔진, 프로잭(Prozac), 당분 없는 음식(Gluten-free), 등을 접할 수 없었다.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

음에도 식량은 그 이상으로 증가했다. 기근으로 사람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 말라리아, 홍역, 황달, 콜레라, 에이즈, 등과 같은 병들이 지구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 살인, 강간, 절도, 가정 폭행, 등과 같은 범죄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건 하우스(Morgan Housel)이란 논평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은 놀랍고 비관적인 소식들뿐이다. 그래야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는 대부분 것들은 천천히 진행되므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다.” 하우스리가 말하는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1800년 미국 평균수명은 39, 1900년은 49, 1950년은 68, 그리고 오늘날은 80이다. 현재 은퇴하는 평균 나이는 62살로 변했다. 62살이라면 얼마 전만 해도 하늘나라에 이미 도착해

있을 나이다.

• 1933년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1,000명당 58이었지만 현재는 6명보다도 적다.

• 1952년에는 38,000명이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현재는 300명보다 적은 숫자이다. 뇌출혈도 사망하는 비율이 75% 감소하였다.

• 주말, 휴가, 은퇴 등으로 휴식하는 시간이 1870년도에는 11년이었지만, 1990년에는 35년으로 증가했다. 평균 수명을 참작해서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면 약 40년이다. 인생의 반 정도를 일하지 않고 즐긴다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운 수치이다.

• 세계 2차 대전으로 100,000명당 300명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는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몇십 명 그리고 1980년대에는 10명보다 적은 숫자이고 21세기로 들어와서는 1명보다도 적은 숫자라고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교수가 발표했다.

• 1960년에는 집에 에어컨을 소유

한 집은 10개 중 1집이었지만 1973년에는 49%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89%가 소유하고 있다. 에어컨이 없는 11% 집은 추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재미있는 광고: Your wife is hot, Better get your A/C fixed.)

• 흑인(African American)의 문맹률이 1900년대에는 45%였지만 현재는 거의 0%이다.

• 대학 졸업한 사람이 1940년에는 5%였지만, 2012년에는 30% 이상이다.

• 미국인 평균 일하는 시간은 1850년에는 66시간, 1909년에는 51시간, 현재는 34.8시간이다.

• 1965년에는 45% 이상의 성인이 담배를 피웠지만, 2011년 와서는 19%로 감소했다.

• 65세 이상 노년 빈곤층이 1966년 30%에서 2010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

•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 1900년에는

65세 이상인 성인 중에서 65%가 일을 계속했지만, 2010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 죽었다.

• 1940/50년대는 핵전쟁이 매우 중요한 기사였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핵무기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70년 동안 중요했던 기사 내용이 실제 일어난 적은 한번도 없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걱정한다.

• 연간 수입이 \$34,000이면 세계에서 부자 1%에 속한다. 세계 10%에 속하기 위해서는 \$12,000, 20%는 \$5,000, 50%에 \$1,225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연간 수입이 \$70,000이라면 세계 부자 0.1%로 당당히 입성한다. 전 세계 인구에서 단지 4%만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부동산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1)

매매 과정의 상식

부동산과 사업체 매매과정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 매매 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서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매매 당사자만으로는 원만한 거래가 힘들다. 그러므로 거래 종결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부동산 변호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변호사(Massachusetts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면 누구든 Massachusetts 에서는 부동산업무를 봐줄 수 있지만 부동산 업무만 보여주는 전문 변호사여야만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하는 업무는 대략과 다음과 같다.

1. 전문 부동산변호사들은 법적 소유권 증서와 담보설정서,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매입자에게 소유권 양도증서를 전달하고 판매자에게는 판매대금을 지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일단 변호사가 승인한 P&S(Purchase and Sales Agreement)이 사인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열람 조사를 타이틀 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에 의뢰하게 된다. 타이틀 보험회사에서는 부동산에 있었던

소유권의 양도, 이전, 담보설정, 법적 문제, 세금관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모든 제반사항의 기록을 발취해 작성한 보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는데 이 보고서를 기초 소유권 조사서 또는 등기열람서(preliminary title report)라고 하며 또는 'prelim' 이라고도 한다.

3. 등기열람서를 부동산 매입자나 은행에 보내서 서류를 검토하도록 한다.

4. 부동산 용자를 신청할 때 계약 때 사인했다는 P&S (Purchase and Sales Agreement)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보내야만 용자 수속이 시작된다.

5. 부동산 판매자와 매입자의 신상명세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에스스코 회사가 접수해 title company로 보내면 그 회사에서는 개인 신상명세서를 기준으로 담보권과 역대 부동산에 대한 계보를 조사한 다음 등기 열람서를 작성하게 된다.

6. 전문 부동산 변호사 오피서는 매매에 관계되는 은행, 부동산 브로커, 소유권 보험회사, 판매자, 매입자와 수시로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연락을 취하게 된다.

7. 전문 부동산 변호사 회사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용자 받았던 부채를 결재

하겠다는 청구서를 금융기관 및 저당권자로부터 받아 매매가 종결될 때 타이틀 회사를 통해 이를 청산하게 된다.

8. 전문 부동산 변호사는 매입자의 금융대출 결재가 나면 용자서류를 신청한다. 용자서류가 전문 부동산 변호사 회사에 도착하면 담당자는 차주(borrower)에게 연락, 용자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전문 부동산 변호사 오피서는 서명된 용자서류와 공증된 신탁 저당 증서(deed of trust) 사본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재보험 증서를 은행에 전달하면 서명된 용자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용자금을 내주게 된다. 원본 신탁저당증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타이틀 회사로 직접 보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한다.

은행 측은 용자대금을 직접 타이틀 회사로 보내며 매매가 종결할 때 타이틀 회사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와 소유권 보험회사의 소유권 보증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잔금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오게 된다.

9. 매매가 끝날 무렵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용자비용, 화재 보험료, 클로징 경비 등을 계산한 다음 매입자로부터 필요한 구입대금을 보증수표(cashiers' check) 또

는 전자 송금을 받아 매매 종결을 준비하게 된다.

10. 전문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판매자로부터 공증된 양도증서(grant deed)를 받아 둔다.

(다음 호에 계속)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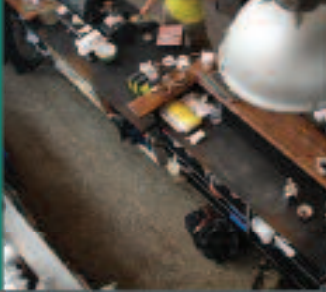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전통의 힘!! 새로운 터!!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a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E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우수한 섬머 프로그램 및 리서치 경험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우수한 리서치와 인턴십 프로그램이 여름 방학동안에 많이 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은 소수 정예로 진행되기 때문에 섬머 프로그램 합격 자체가 대학 진학보다 힘든 경우도 있다. 섬머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이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섬머는 여행, 아카데미, 예술, 리더십, 작문, 외국어, 디베이트,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하바드에 합격한 학생들이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서 학원만 다니면서 다음 학기 성적 관리와 SAT를 준비한 경우는 거의 없다. 무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하바드에 합격한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섬머는 매우 다양하다. 하바드 입학 사정관들에게 크게 호소할 수 있는 서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School Year Abroad), 미들베리 랭귀지 프로그램, 수학 캠프 (Ross, PROMYS, SuMac), 과학 캠프 (MITES, RSI, WTP, SSP, Clark, Garcia, SIMR, RISE, SSTP, M&TSI

등), 음악 캠프 (Tanglewood, Greenwood, Interlochen), 리더십 캠프 (Boys and Girls State or Nation, HOBY, LEAD), 작문 캠프 (Kenyon, Sewanee, Simon's Rock), 디베이트 캠프 (National High School Summer Institute, Jr. statement of America, TIP), 사회 과학 (Telluride) 등이 있다. 하바드 입학생들 중 많은 수가 위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였고 봉사활동과 다양한 기관에서 리서치 등을 하였다.

명성 있는 섬머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이 대학 진학보다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섬머 참여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하바드 입학에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조합 중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섬머와 자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경시 대회 참여는 중요하다. 최근 하바드 입학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항상 학교 성적을 먼저 보고 다음 도전적인 과목 선택 여부를 보는 게 순서였는데 최근 하바드 학생들의 학력에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전적인 과목 수강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추후 학점과 등수를 보는 추세로, 학생들이 적어도 Very demanding (7-9개 정도

의 Honors나 AP과목 수강)과 Most Demanding (10개 이상의 Honors나 AP과목 수강) 정도 아카데미 코스 수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바드가 중요시한 아카데미 코스를 정리해보면, 코스 난이도, 등수, 성적, SAT 1, 2 성적, AP 성적, 섬머 경험, 그리고 경시대회 입상 유무가 중요한 요소이다.

“올해 하바드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미국 보딩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2학년까지 총 12개의 AP과목을

수강했고, USAMO는 4년 연속 출전했습니다. 섬머는 9학년 때 PROMYS, 10학년 Chemistry Research, 11학년은 UPenn 엔지니어링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매 섬머마다 쉬지도 못하고 섬머 캠프에 참여하였지만 섬머 캠프를 통해 천재성이 있는 친구들과 많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힘들게 하바드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하바드에서 배우고, 만나고, 얻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바드에 입학허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미국에는 현재 약 4,600 개의 크고 작은 대학교들이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도 잘 알려진 하버드나 프린스턴을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 있고, 그만큼 유명한 MIT나 스탠포드 같은 학교도 있다. 물론, 존스 홉킨스나 듀크대 같은 명문대학교도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렇듯 보통 한국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랭킹이 높은 종합 대학교가 많다. 아무래도 연구 설비가 좋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내는 만큼 학계를 넘어서 유명세를 떨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대형 종합대학교 외에 특정한 분야에서의 교육에 집중하는 Liberal Arts College나 사립이 아닌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를 받는 학교들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Babson College
 뱁슨 컬리지는 1919년에 설립된, 창업과 경

유명하지 않은 명문 대학교 (1)

영, 기업이 정신 (entrepreneurship)에 교육 포커스를 맞춘 Liberal Arts College다. 학생 수 2,800 여명의 작은 사립대학교이지만 Money Magazine은 뱁슨의 학부 경영 커리큘럼을 MIT (3위), 프린스턴 (4위), 스탠포드 (5위), 하버드 (6위) 보다 더 상위로 평가한 바 있다. 순위 매길 당시, Money지 (誌)는 경제 전문 잡지답게 단순히 교육의 질이나 교수진의 수준 뿐만 아니라 학비와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모두 따져보았다고 발표했다. 여러 대학교 종합 순위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크다고 하는 US News & World Report 또한 18년 전부터 매년 Babson의 창업 프로그램을 1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학생들이 주도해서 창업하는 벤처가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뱁슨의 한인 학생들도 여러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경영/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형 교양 대학교인 Wellesley College와 공대인 Olin College와 도 자매 결연을 맺어 폭넓은 분야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Rice University
 텍사스 주 남부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사립 대학교이다. 학부 중심의 교육이 유명하며, 학생들은 6개 대학, 50 개 이상의 전공 분야 중에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캠퍼스는 대도시인 휴스턴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USC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나 UPen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등과 다르게 학교 근방 지

역이 위험하지 않고, 공원, 박물관, 동물원, 대규모 의학 시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기로 유명하기도 하다. 경제 전문지 Forbes에서는 '학비에 비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로 항상 1위를 매기기도 한다. 특히 생명 공학, 광학 물리학, 공공 정책 (Public Policy) 등의 전공을 서포트하는 거대한 연구 및 조사 기관이 있고, NASA (미국 항공 우주국)와 연계가 충실한 항공우주공학은 미국 최고 수준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선언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학교 설립 당시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하워드 휴즈가 많은 후원금을 기부해서 자금이 풍부하게 시작했으며, 현재도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실한 편이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 위치한 최상위권 연구 대학이다. 소위 WashU (와슈) 혹은 WUSTL 라는 별칭이 있으며 비슷한 이름의 University of Washington (UW: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주립대학)이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대학)와는 전혀 다른 학교다. 한국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그 명성이 덜 알려져 있지만 중간 규모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거쳐가는 등 교육 수준은 최고인 학교다. 유명 전공 분야로는 이과계통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물, 화학, 물리를 비롯해 의학, 경영학,

건축학 등 전문직을 키우는 커리큘럼도 뛰어나다. 2014년 기준으로 US News & World Report 대학 랭킹 14위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 보다 상위권), Newsweek에서 발표한 학부 경영대 프로그램 4위, 그리고 Tuft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와 함께 Pre-med (의학대학원 준비과정) 탑 3 안에 들기도 한다. 학생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재학생 1만 4천여 명 중에서 미주리 주 출신은 약 13% 밖에 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 수도 85개국 출신의 1300여 명 정도로 요즘 들어 유학생 모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유난히 등록금 및 생활비가 높은 대학으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8번째로 후원금이 많은 대학교이고,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유학생에게도 많은 장학금의 기회가 열려있다. Princeton Review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우수한 대학' 4위에 랭크하기도 했다. 학교 재원이 풍부한 만큼 시설도 어마어마한데, 학생용 골프장, 보트장, 야외 영화관, 스케이트장 등의 초호화 시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용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슈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 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 11, 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 2 /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